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현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면 피부 미용시술  
유경험자의 부작용 심각성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황 청 하

안면 피부 미용시술  
유경험자의 부작용 심각성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배 현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황 청 하

# 인 준 서

황청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미용시술 유경험자를 통해 미용시술 부작용에 대한 경험 및 부작용 인식여부에 관해 알아보고, 미용시술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지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 여성으로 총 275부를 회수한 설문지로 최종 통계 처리해서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를 이용해 빈도분석, 교차빈도분석, 만족도 점수는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미용시술 유경험자 275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미용시술 장소로는 ‘전문의 피부과 병원’이 4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병원’이 21.8%, ‘일반 피부관리실’이 13.5%, ‘병원 내 피부관리실’이 11.6%, ‘기타’가 4.4%, ‘한의원 내 피부관리실’이 3.3%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시술 정보 경로로는 ‘가족/친구/동료’가 4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매스미디어’와 ‘피부과 병원’이 18.2%로 동일했고, ‘성형외과 병원’이 13.4%, ‘피부관리실’은 4.4%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시술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전문성과 신뢰도’가 42.5%로 가장 높았고, ‘지인에게 소개 받은 곳’이 33.1%로 미용시술 정보 경로와 서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집, 직장과 가까운 곳’이 10.5%, ‘인지도’가 8.7%, ‘이용가격’이 2.5%, ‘교통 및 주차가 편리한 곳’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시술 결정시 장애 요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52.0%로 가장 높았고, ‘시술 후 개선의 여지가 미약할까봐’ 18.5%,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이 10.2%, ‘기타’가 2.2%, ‘시술 받은 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시술을 받게 된 동기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부위의 결점 보완’이 26.2%로 가

장 많았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24.0%,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기 위해’가 21.8%, ‘흉터 등의 신체부위의 결점 보안’은 14.2%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시술 종류에 따라 시술부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시술동기에 의해 연령별,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부작용 경험과 심리 상태에도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대상자가 미용시술 부작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가 64.6%로 높았지만, 사전고지와 시술동의서 작성여부에 관해서는 ‘하지 않았다’가 58.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용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 빈도가 미용시술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용시술 유경험자들 또한, 시술 경험을 노출시킴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상기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미용시술 유경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향후에는 미용시술 부작용 실태에 관한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 론</b> .....	1
<b>II. 이론적 배경</b> .....	2
1. 미용시술 종류의 역사 및 특성 .....	2
2. 시술 후 종류별 부작용 .....	4
3. 현 미용시술의 실태 .....	6
<b>III.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b> .....	8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	8
2. 연구 모형 .....	8
3. 연구 분석 방법 .....	9
<b>IV. 연구 결과 및 고찰</b> .....	10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0
2. 일반적인 미용시술 관련 실태 .....	12
3. 미용시술 종류별 실태조사 .....	17
1). 레이저 .....	17
2). 필러 .....	20
3). 보톡스 .....	22
4). 미용주사 .....	24
5). 실 리프팅 .....	26

6. 반영구 화장 .....	28
4. 미용시술 만족도 .....	31
5. 미용시술 종류별 부작용에 관한 실태조사 .....	32
1). 레이저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부작용 실태 .....	33
2). 필러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부작용 실태 .....	36
3). 보톡스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부작용 실태 .....	39
4). 미용주사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부작용 실태 .....	41
5). 실 리프팅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부작용 실태 .....	44
6). 반영구 화장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부작용 실태 .....	46
6. 미용시술 부작용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49
<b>V. 결론 및 제언 .....</b>	<b>54</b>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주사별 성분 및 특성 .....	3
표 2. 인구 통계학적 특성 .....	11
표 3. 시술 받은 미용시술의 실태(다중응답) .....	12
표 4. 미용시술 관련 실태조사 .....	13
표 5. 미용시술 관련 연령별 미용시술 실태 .....	15
표 6. 레이저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	17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이저 시술 동기 .....	19
표 8. 필러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	20
표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필러 시술 동기 .....	21
표 10. 보톡스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	22
표 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톡스 시술 동기 .....	23
표 12. 미용주사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	24
표 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미용주사 시술 동기 .....	25
표 14. 실 리프팅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	26
표 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실 리프팅 시술 동기 .....	27
표 16. 반영구 화장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	28
표 1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반영구 화장 시술 동기 .....	30
표 18. 미용시술 만족도 .....	32
표 19.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실태 .....	33
표 20. 레이저 시술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	34
표 21. 필러 시술 후 부작용 실태 .....	36
표 22. 필러 시술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	37
표 23.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실태 .....	39

표 24. 보톡스 시술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	40
표 25. 미용주사 시술 후 부작용 실태 .....	41
표 26. 미용주사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	42
표 27. 실 리프팅 시술 후 부작용 실태 .....	44
표 28. 실 리프팅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	45
표 29. 반영구 화장 시술 후 부작용 실태 .....	46
표 30. 반영구 화장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	47
표 31. 부작용 인식에 대한 연령별 실태 조사 .....	50
표 32. 부작용 인식에 대한 직업별 실태 조사 .....	52

## 그림 목 차

그림 1.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	6
그림 2. 미용시술 피해 유형 .....	6
그림 3. 연구 분석 모형도 .....	8
그림 4. 레이저 시술을 받은 동기 .....	17
그림 5. 필러 시술을 받은 동기 .....	20
그림 6. 보톡스 시술을 받은 동기 .....	22
그림 7. 미용주사 시술을 받은 동기 .....	24
그림 8. 실 리프팅 시술을 받은 동기 .....	26
그림 9.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동기 .....	29
그림 10. 미용시술 종류별 부작용 경험 유/무 .....	32
그림 11. 미용시술의 부작용 인식 여부 .....	49

## I. 서 론

최근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관심의 기준이 내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외적인 아름다움까지로 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그 기준이 깨끗한 피부와 동안 얼굴 등 외모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미용시술과 미용성형은 빠르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이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려 질 만큼 시술을 받는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 K-Beauty가 각광받고 있으며, 의료관광이라는 여행상품까지 출시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시술을 받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매우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미용 성형시술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245건(연평균 415건)으로, 특히 필러 시술 후 피해 발생에 대한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 소비자원, 2016) 그러나, 시술을 받는 이가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준비하며 미용시술에 관련 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였으며, 유경험자를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는 것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사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기초 연구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경험자를 통해 미용시술 부작용에 대한 경험 및 인식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성형이 아닌 시술만으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의료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을 알리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용시술 종류의 역사 및 특성

미용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주사나 레이저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술 시간 또한, 10~30분으로 짧고, 시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술이다. 최근 들어 대중화되고는 있지만 그 역사적 유래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4,000년 전 이집트 미라에서 문신이 발견되었고, BC 800년경 고대 인도에서 잘린 코를 재건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고대에는 미술적, 종교적 및 용감함의 상징, 계급사회의 행태로 보여주었던 미용시술이 현재에는 아름다움을 위한 행태로 대중화 되고 있다.(최창원외, 2004)

레이저는 1917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으며(최지호, 1994),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피부의 구조에서 진피층까지 열 또는 빛이 들어가 인위적으로 피부를 상하게 해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박수하, 2014)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하게 시술을 했을 때 경미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툴리눔은 식중독의 한 형태로 고대로부터 유럽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영애,안성아 2002) 보툴리눔 독소는 1973년 사시치료에 처음 사용되었고 1989년 사시, 안 경련, 안면 반쪽 마비 등의 치료로 FDA의 승인을 받았다. 1999년 우리나라 피부과 영역에서 사용이 보편화 되었고, 2002년 미용 목적의 주름 치료에도 FDA의 승인을 받았다. 표정근에 의한 주름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사각턱, 미간주름, 이마주름, 눈가주름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박현정, 2002)

필러는 주사기를 이용한 지방 주입은 1911년에 닥터 Brunning이 처음으로 시도 했다고 한다. 1900년대 파라핀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1940년대 실리콘

콘 필러가 등장했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부작용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자 미국FDA에서 실험을 해 1991년 액상 실리콘은 금지약물로 규정 되어졌다. 1980년대 소와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 1세대 필러가 등장을 하지만 알레르기 검사와 과민반응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 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전체 국내 필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HA(hyaluronic acid)필러가 등장을 하면서 사용이 간편하고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 시작했다. (<http://blog.naver.com/rinhart/220586920652>)

또한, 요즘 미용 시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내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미용주사에 관심을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개원가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아직 효과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1. 주사별 성분 및 특성

종 류	내 용
백옥주사	성분-글루타치온(필리핀에선 금지, 광범위한 항산화제), 신경계·폐·간염의 보조치료제로 사용, 피부톤이 하얘진다고 알려졌지만 피부에 대한 작용은 10%미만(일명 비은세주사)
신데렐라주사	성분-알파리포산, 강력한 항산화제, 지방과 물에 모두 작용 가능한 항산화 물질, 간기능 회복용으로 사용, AIDS나 다발성신경병증에도 처방, 항산화효과 및 미백, 노화방지 효과, 허나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다.
마늘주사/감초주사	마늘주사-푸르셀티아민염산염, 비타민 B1결핍예방, 마늘향이 난다. 각기병치료, 신경통, 관절통, 말초신경장애등 효과,(But 폐부종, 중추신경불안,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
V라인/윤곽/달걀주사	감초주사-글리시리진, 항염증 작용, 알러지성 피부질환, 만성 간질환 효과 성분이 정해진 바는 없고, 병원마다 재량껏 성분을 배합해서 쓰는것, 지방층에 직접 주입해 지방층을 줄여주는 효과
물광주사	성분-히알루론산, 작은 입자를 피부에 촘촘히 얇게 주사한다, 시술시 통증이 상당, 시술 후 울룩불룩한 자국이 1~3일정도 지속됨.
뱀파이어주사 (피주사)	PRP: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피를 뽑아서 정제해서 PRP를 따로 뽑아낸다. 이를 관절치료목적, 얼굴 피부에 얇게 촘촘히 주사, 바르기도 한다. 피부재생으로 알려짐, 통증이 상당함.

<http://ppss.kr//archives/20323>

(출처: 권용현)

실 리프팅이 1990년대 러시아 의사 술라마니츠가 실을 피부에 넣어 처진 부위를 당겨 피부노화를 치료한 것으로 녹지 않는 실에서 지금은 PDO라는 녹는 실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미용시술에 사용된 PDO실은 피부 안

에서 실이 녹는 과정을 통해 콜라겐 섬유를 증가 시키고 피부탄력이 생겨 리프팅 효과가 나타났다.(최경희, 2015)

반영구화장은 1980년대에 이르러 미용사, 간호사, 피부미용사, 전기분해요법 시술사 등이 반영구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한선미, 2015) 미세한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 정도 유지된다. 반영구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메이크업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민낫의 얼굴에도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며, 화장을 잘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편리함과 눈썹이 없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갖게 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시술이다.

## 2. 시술 후 종류별 부작용

미용시술 종류별에 따른 부작용은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부작용 등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레이저에 따른 부작용은 시술 후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는데, 보통 3개월이 경과하면 자연 소실되지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색소손실 및 피부의 위축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시술 후 항생제 연고에 의한 접촉피부염이 발생 할 수 있다.

레이저 박피 후 색소의 변화, 홍반, 감염, 반흔, 그리고 트러블 및 흉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계영철, 2005) 가끔 기미치료를 함에 있어 드물게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도 관찰되었다.(강원형, 2000) 또한, 잦은 시술이나 과한시술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부건조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 염증과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툴리눔 독소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은 일단 생기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난치한 부작용으로 독소가 확산되어 주변 근육들이 마비되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수, 복시, 불 꺼짐, 부자연스러운 웃음, 연하장애, 목 근육약화, 호흡장애가 있다.(이우진, 장성은 2013) 또한, 두통, 열 감, 오한, 혈압상승,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주사부위와 주사량에 따라

다르나 반상 출현이 있을 수 있고, 뺨 근육에 주사 시 구각약화증이 올 수 있다.(배근혜, 2003)

필러의 부작용은 대부분이 통증, 부종, 멍 등 심각하지 않는 부작용만 보고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 치명적인 필러 시술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 필러 시술시 생기는 치명적인 부작용은 피부괴사에서 실명 등이 있고, 더욱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이수상, 2015) 또한, 육아종성 염증, 무균성 농양, 주입물의 이동, 흉터 이외에도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손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조직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백동원의 4인, 2013)

2013년 미국통계를 봤을 때 약 1,500만 건에 달하는 미용시술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보틀리눔 독소가 630만 건 그리고 필러가 220만 건이었고, 이는 2012년 통계와 비교해 봤을 때 보틀리눔 독소 시술은3%, 필러시술은 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김현조, 2016)

미용주사 중 백옥주사는 글루타치온 성분으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백반증을 일으킬 수 있다. 두통과 울렁거림,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독성 물질로 인한 피부 혈관의 반응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미용주사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제 물질이 대부분이지만 현재까지 피부미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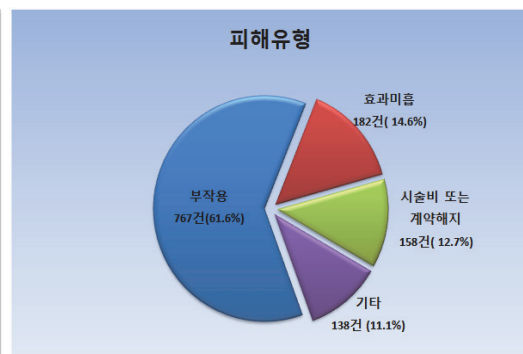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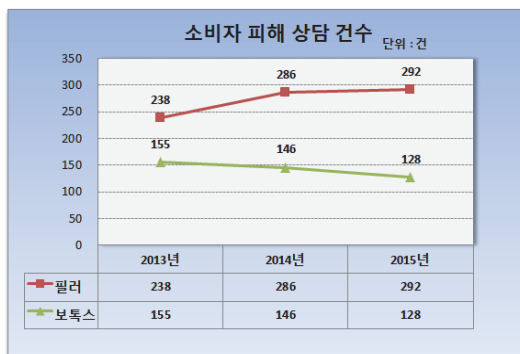
예전에는 칼을 이용하여 절개 봉합술을 시행 후 회복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효과는 물론 간단한 시술을 원한다. 하지만 간단하면서 효과를 보고 싶은 실 리프팅에도 부작용은 존재했다. 좌우 비대칭, 피부의 함몰 및 우는 현상, 실 노출, 실이 비쳐 보이고, 녹지도 않고, 간혹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 삽입부분에 염증과 거대한 육아종, 붓기, 멍, 당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영구 화장의 부작용으로는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색상의 불만족과, 색소제거 문제, 붓기, 진물, 딱지, 멍이 있으며, 알레르기와의

가려움증은 색소를 제거하기가 어렵고, 피부가 켈로이드 피부이면 그 자리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색소에 의해 육아종이 생길 수 있다. 아이러인을 시술 한 후 안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술은 단순포진이 발생해 병원을 내방해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색소성분인 중금속으로 인해 MRI촬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선미, 2015) 또한,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해 'C형 간염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인해 감염발생이 되었고, 부종이나 각막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NAVER 지식백과, 2009) 현재 반영구 화장이 바쁜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실, 네일샵, 미용실 등에서 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비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술을 받을 때에는 신중히 고려를 해본 후 결정을 하길 바란다.

### 3. 현 미용시술의 실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주사만으로 시술이 가능한 미용시술은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느껴지고 시술 후 일상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 2016)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그림 1>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그림 2> 미용시술 피해 유형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 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톡스·필러 시술 후 피해 상담은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으로 연평균 415건이며 특히 필러 시술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소비자원, 2016)

또한, 한국망막학회 논문에 보고된 44증례 중 22례가 성형용 필러로 인한 실명이었으므로 식약처의 성형 필러 부작용 사례에는 최소한 22건의 실명사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2~2014년 8월까지 보고된 필러 부작용 사례는 145건이 대부분이지만 통증, 부종, 멍 등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이었고, 실명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의료기관과 제조 판매업자들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2015년 9월 말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식약처는 필러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고,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해온 12개 제품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10월경에 했으며, 제품에 주의 문구가 삽입되었다.(하성윤, 2015)

미국의 경우 레이저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및 사용된 장비에 대해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의 Manufacturer and User Facility Device Experience(MAUDE)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외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미용시술을 포함한 피부과적 시술의 부작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시술자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작용 사례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발생건수나 통계자료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김대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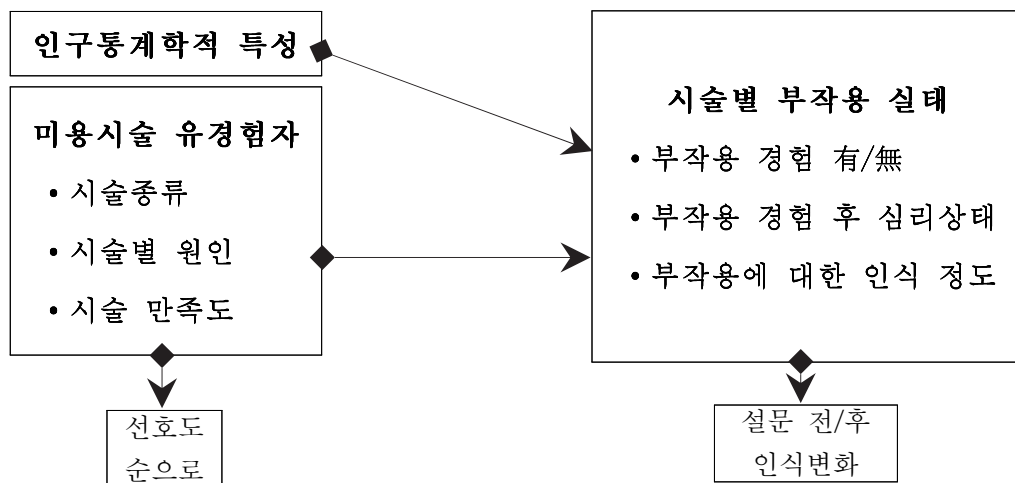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자료만 해도 수차례나 될 정도로 부작용의 피해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술을 해준 병원이나 관리실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에게는 재 시술만을 권할 뿐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 등 책임소재 여부 등이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다.

### Ⅲ.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27일 총 4주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직접 설문지법으로 총 301부를 배부하여 26부를 제외한 나머지 275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설문지를 토대로 최종 통계 처리하여 자료를 분석 한 것이며, 내용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시술받은 종류와 원인, 시술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부작용 경험이 있는지,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설문 전 미용시술 부작용 가능성의 인식과 설문 후 부작용 가능성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2. 연구 모형



<그림 3> 연구 분석 모형도

### 3. 연구 분석방법

본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23.0이며, 사용한 통계분석기법은 응답자의 기초 응답분포를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일부 문항의 경우 교차빈도분석(crosstab analysis)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만족도 점수에 대해서는 기술적 통계방법(descriptiv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미용기술 유경험자로서 전체 275명 여자를 대상으로 연령은 30대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균연령이 35.96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36.4%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은 전문직 32.0%,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28.0%, 결혼유무 관련해서는 기혼 48.0%등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 분	N(%)
성별	여자	275 (100.0)
	평균 연령	35.96세
연령	20~29세	84 (30.5)
	30~39세	99 (36.0)
	40~49세	67 (24.4)
	50~59세	17 (6.2)
	60대이상	8 (2.9)
	12년	49 (17.8)
학력	14~15년	86 (31.3)
	16년	100 (36.4)
	18년이상	40 (14.5)
	회사원	57 (20.7)
직업	자영업	24 (8.7)
	서비스업	40 (14.5)
	대학생 및 대학원생	9 (3.3)
	전업주부	46 (16.7)
	전문직	88 (32.0)
	기타	10 (3.6)
	수입없음	49 (17.8)
	200만원미만	67 (24.4)
월수입	200~300만원	77 (28.0)
	300~400만원	38 (13.8)
	400~500만원	23 (8.4)
	500만원이상	21 (7.6)
	결혼유무	미혼
기혼		132 (48.0)
기타		19 (6.9)

## 2. 일반적인 미용시술 관련 실태

연구대상자가 받은 미용시술의 실태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이 레이저가 2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톡스와 반영구 화장이 각각 23.7%, 필러 13.2%, 미용주사 7.4%, 실 리프팅 3.3%, 기타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은(2014) 레이저 시술 경험자가 44.9%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레이저 시술 경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시술 받은 미용시술 실태 (다중응답)

		N(%)
시술 받은 미용시술의 종류	레이저	111 (28.2)
	필러	52 (13.2)
	보톡스	93 (23.7)
	미용주사(물광,백옥,마늘등)	29 (7.4)
	실리프팅	13 (3.3)
	반영구화장	93 (23.7)
	기타	2 (0.5)
	TOTAL	393 (100.0)

연구대상자가 받은 미용시술 관련 실태조사는 <표 4>와 같다. 선호하는 미용 시술 장소로는 ‘전문의 피부과 병원’이 45.5%로 가장 많았고, 미용시술에 관한 정보 취득경로를 보면, ‘가족/친구/동료’가 46.9%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시술을 받기위해 장소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전문성 및 신뢰도’가 42.5%로 가장 높았고, 미용시술을 결정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용시술을 받게 된 동기를 보면, ‘노화로 인한 신체부위의 결점 보완’이 2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2014)은 ‘미용관련 정보경로 취득’을 연령이 적을수록 매스미디어에서, 50대이상은 지인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본 연구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변선주(2011)는 미용성형의 긍정적인 이유로 ‘자신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57.9%로 본 연

구의 시술 동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미용시술 관련 실태조사

	구분	빈도	백분율
선호하는 미용시술 장소	병원 내 피부관리실	32	11.6
	일반 피부관리실	37	13.5
	한의원 내 피부관리실	9	3.3
	전문의 피부과 병원	125	45.5
	성형외과 병원	60	21.8
	기타	12	4.4
미용시술 정보 취득 경로	매스미디어	50	18.2
	피부관리실	12	4.4
	피부과병원	50	18.2
	성형외과병원	34	12.4
	가족/친구/동료	129	46.9
	기타	0	0.0
미용시술 장소 결정시 고려사항	집, 직장과 가까운 곳	29	10.5
	교통 및 주차하기 편리한 곳	5	1.8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곳	91	33.1
	인지도	24	8.7
	전문성 및 신뢰도	117	42.5
	직원의 친절함	1	.4
	이용가격	7	2.5
	기타	1	.4
	비용	43	15.6
	부작용에 대한 걱정	143	52.0
미용시술 결정시 장애요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	28	10.2
	시술 받은 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	3	1.1
	시술 후 개선의 여지가 미약할까봐	51	18.5
	원하는 곳이 인지도가 낮을 때	1	.4
	기타	6	2.2
미용시술 받게 된 동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	66	24.0
	흉터 등의 신체부위의 결점보완	39	14.2
	노화로 인한 신체부위의 결점보완	72	26.2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기 위해	60	21.8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하여	17	6.2
	기타	21	7.6

미용시술 관련 연령별 미용시술 실태를 보면 <표 5>과 같다.

선호하는 미용시술 장소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전문의 피부과 병원’이 가장 많고, 미용시술 정보경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친구/동료’가 가장 많았다. 미용시술 관련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을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전문성 및 신뢰성’이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 ‘지인에게 소개’가 가장 많았다. 미용시술 결정시 장애요인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시술을 받게 된 동기를 보면 20대에서는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이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등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부위의 결점 보완’등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은경(2011)은 실버세대 여성들의 피부 관련 정보 습득경로로 친구, 이웃, 가족이 49.1%로 본 연구의 50~60대 이상의 연령대와 유사하게 보여 진다.

표 5. 미용시술 관련 연령별 실태조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선호하는 미용시술 장소	병원 내 피부관리실	10 (11.9)	10 (10.1)	9 (13.4)	2 (11.8)	1 (12.5)
	일반 피부관리실	7 (8.3)	10 (10.1)	11 (16.4)	8 (47.1)	1 (12.5)
	한의원 내 피부관리실	2 (2.4)	1 (1.0)	5 (7.5)	1 (5.9)	-
	전문의 피부과 병원	45 (53.6)	50 (50.5)	25 (37.3)	3 (17.6)	2 (25.0)
	성형외과 병원	18 (21.4)	24 (24.2)	13 (19.4)	3 (17.6)	2 (25.0)
	기타	2 (2.4)	4 (4.0)	4 (6.0)	-	2 (25.0)
미용시술 정보경로	매스미디어 (인터넷/잡지/TV/신문)	18 (21.4)	22 (22.2)	8 (11.9)	2 (11.8)	-
	피부관리실	3 (3.6)	1 (1.0)	5 (7.5)	3 (17.6)	-
	피부과 병원	19 (22.6)	16 (16.2)	12 (17.9)	3 (17.6)	-
	성형외과 병원	11 (13.1)	15 (15.2)	6 (9.0)	1 (5.9)	1 (12.5)
	가족/친구/동료	33 (39.3)	45 (45.5)	36 (53.7)	8 (47.1)	7 (87.5)
미용시술 관련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집, 직장 근처	9 (10.7)	9 (9.1)	7 (10.4)	3 (17.6)	1 (12.5)
	교통 및 주차의 편리	2 (2.4)	1 (1.0)	1 (1.5)	1 (5.9)	-
	지인에게 소개	31 (36.9)	25 (25.3)	20 (29.9)	9 (52.9)	6 (75.0)
	인지도	4 (4.8)	9 (9.1)	10 (14.9)	1 (5.9)	-
	전문성 & 신뢰성	34 (40.5)	53 (53.5)	26 (38.8)	3 (17.6)	1 (12.5)
	직원의 친절함	-	1 (1.0)	-	-	-
	이용 가격	4 (4.8)	-	3 (4.5)	-	-
	기타	-	1 (1.0)	-	-	-
미용시술 결정 시 장애요인	비용(경제적인 어려움)	20 (23.8)	9 (9.1)	9 (13.4)	3 (17.6)	2 (25.0)
	부작용에 대한 걱정	35 (41.7)	60 (60.6)	35 (52.2)	9 (52.9)	4 (50.0)
	시간적이 여유가 없음	5 (6.0)	12 (12.1)	8 (11.9)	3 (17.6)	-
	시술받은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	-	2 (2.0)	1 (1.5)	-	-
	시술 후 개선의 여지가 미약할까봐	21 (25.0)	14 (14.1)	14 (20.9)	1 (5.9)	1 (12.5)
	원하는 곳이 인지도가 낮을 때	-	-	-	1 (5.9)	-
	기타	3 (3.6)	2 (2.0)	-	-	1 (12.5)
시술을 받게 된 동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	29 (34.5)	21 (21.2)	11 (16.4)	3 (17.6)	2 (25.0)
	흉터 등의 신체부위의 결점 보완	9 (10.7)	17 (17.2)	11 (16.4)	2 (11.8)	-
	노화로 인한 신체부위의 결점보완	4 (4.8)	26 (26.3)	30 (44.8)	9 (52.9)	3 (37.5)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기 위해	30 (35.7)	22 (22.2)	8 (11.9)	-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2 (2.4)	8 (8.1)	3 (4.5)	3 (17.6)	1 (12.5)

미용시술 관련 직업별 실태를 보면, 선호하는 미용시술 장소에서는 자영업  
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전문의 피부과 병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  
다. 미용시술 정보경로를 보면, 모든 직종에서 가족/친구/동료가 가장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고, 미용시술 관련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을 보면 전문  
직과 기타를 제외하고 ‘전문성 및 신뢰성’과 ‘지인에게 소개’등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미용시술 결정시 장애요인을 보면, 모든 직종에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을 받게 된 동기를 보면, 자영업자  
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보다 나은 사회생  
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미용시술 종류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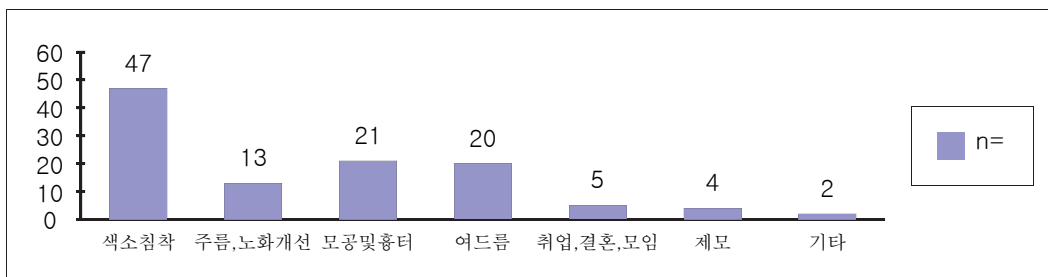
#### 1) 레이저

레이저 시술의 부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피부(얼굴전체)가 8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눈가 4.3%, 기타 3.4%, 이마 2.6%, 코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레이저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N(%)
시술 받은 레이저	눈가	5 (4.3)
	코	2 (1.7)
시술 부위	턱	-
	이마	3 (2.6)
	피부(얼굴전체)	103 (88.0)
	두피	-
	기타	4 (3.4)
TOTAL		117 (100.0)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된 동기를 응답자수(n=111) 살펴보면 레이저를 시술 받은 응답자 중 색소침착이 42% 가장 많았고, 모공 및 흉터가 18.8%로 많았다. 이정은(2014)은 레이저를 이용해 색소, 탄력, 흉조, 모공, 흉터 관련 문제성 피부 관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레이저 시술을 받은 동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이저 시술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연령별 비교에서 20대는 모공 및 흉터와 여드름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았고, 30대, 40대, 50대 등에서는 색소침착이 가장 많았다. 학력별 비교에서는 모든 학력수준에서 색소침착이 가장 많고, 특히 12년 집단에서 제일 높았다. 직업별 비교에서는 전문직에서 색소침착이 가장 높았으며, 월수입과 관련해서는 색소침착은 수입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이저 시술 동기

		색소침 착(기미 및 반점)	주름, 노화개 선	체모	취업, 결혼, 모임	모공 및 흉터	여드름	기타
연령	20~29세	7 (17.9)	1 (2.6)	-	2(5.1)	16 (41.0)	13 (33.3)	-
	30~39세	19 (46.3)	6 (14.6)	1(2.4)	3(7.3)	5 (12.2)	6(14.6)	1(2.4)
	40~49세	17 (65.4)	4 (15.4)	3 (11.5)	-	-	1(3.8)	1(3.8)
	50~59세	3 (75.0)	1 (25.0)	-	-	-	-	-
	60대이상	1 (50.0)	1 (50.0)	-	-	-	-	-
학력	12년	7 (50.0)	1 (7.1)	-	-	3 (21.4)	3 (21.4)	-
	14~15년	10 (38.5)	1 (3.8)	-	1 (3.8)	6 (23.1)	8 (30.8)	-
	16년	19 (40.4)	6 (12.8)	2 (4.3)	4 (8.5)	10 (21.3)	5 (10.6)	1 (2.1)
	18년이상	11 (44.0)	5 (20.0)	2 (8.0)	-	2 (8.0)	4 (16.0)	1 (4.0)
직업	회사원	9 (39.1)	1 (4.3)	1 (4.3)	1 (4.3)	10 (43.5)	1 (4.3)	-
	자영업	3 (33.3)	2 (22.2)	1 (11.1)	-	1 (11.1)	1 (11.1)	1 (11.1)
	서비스업	2 (15.4)	-	1 (7.7)	-	4 (30.8)	5 (38.5)	1 (7.7)
	대학생 및 대학원생	4 (57.1)	1 (14.3)	-	-	-	2 (28.6)	-
	전업주부	5 (33.3)	4 (26.7)	1 (6.7)	2 (13.3)	1 (6.7)	2 (13.3)	-
	전문직	23 (54.8)	5 (11.9)	-	1 (2.4)	5 (11.9)	8 (19.0)	-
	기타	1 (33.3)	-	-	1 (33.3)	-	1 (33.3)	-
월수입	수입없음	4 (28.6)	3 (21.4)	-	2 (14.3)	-	5 (35.7)	-
	200만원 미만	8 (33.3)	-	-	1 (4.2)	9 (37.5)	5 (20.8)	1 (4.2)
	200~300만원	13(39.4 )	-	1 (3.0)	2 (6.1)	10 (30.3)	7 (21.2)	-
	300~400만원	9(50.0)	3 (16.7)	1 (5.6)	-	2 (11.1)	3 (16.7)	-
	400~500만원	7(70.0)	3 (30.0)	-	-	-	-	-
	500만원 이상	6(46.2)	4 (30.8)	2 (15.4)	-	-	-	1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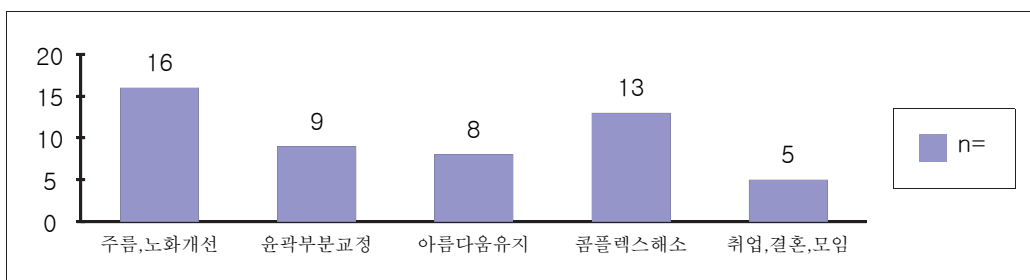
## 2) 필러

필러시술을 받은 부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팔자/볼이 2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눈 밑 25.8%, 기타 17.7%, 아래턱 11.3%, 눈가/미간 6.5%, 입술 4.8%, 목과 이마가 각각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필러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N(%)
시술 받은 필러 시술 부위	눈가/미간	4 (6.5)
	눈밑	16 (25.8)
	아래턱	7 (11.3)
	팔자/볼	17 (27.4)
	목	2 (3.2)
	입술	3 (4.8)
	이마	2 (3.2)
	기타	11 (17.7)
	TOTAL	

필러시술을 받게 된 동기를 응답자 수로(n=52) 알아보면, 주름, 노화개선이 3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콤플렉스 해소 25%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필러 시술을 받은 동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필러 시술 동기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20대는 9명(39.1%)으로 콤플렉스 해소가 높았지만, 30대 이상부터는 모두 주

름, 노화개선이 주된 동기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업주부가 주름, 노화개선에서 가장 높았고, 자영업 서비스업은 윤곽부분 교정에서, 회사원과 전문직은 콤플렉스 해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필러 시술 동기

		주름, 노 화개선	윤곽부분 교정	아름다움 유지	취업, 결 혼, 모임	콤플렉스 해소	기타
연령	20~29세	-	5 (21.7)	4 (17.4)	4 (17.4)	9 (39.1)	1 (4.3)
	30~39세	7 (41.2)	4 (23.5)	2 (11.8)	-	4 (23.5)	-
	40~49세	5 (71.4)	-	1 (14.3)	1 (14.3)	-	-
	50~59세	3 (75.0)	-	1 (25.0)	-	-	-
	60대이상	1 (100.0)	-	-	-	-	-
학력	12년	3 (30.0)	-	2 (20.0)	1 (10.0)	4 (40.0)	-
	14~15년	6 (40.0)	1 (6.7)	4 (26.7)	-	4 (26.7)	-
	16년	5 (25.0)	6 (30.0)	1 (5.0)	4 (20.0)	3 (15.0)	1 (5.0)
	18년이상	2 (28.6)	2 (28.6)	1 (14.3)	-	2 (28.6)	-
직업	회사원	2 (22.2)	1 (11.1)	2 (22.2)	1 (11.1)	3 (33.3)	-
	자영업	1 (50.0)	1 (50.0)	-	-	-	-
	서비스업	1 (11.1)	4 (44.4)	1 (11.1)	-	3 (33.3)	-
	대학생 및 대학원생	1 (33.3)	-	-	1 (33.3)	1 (33.3)	-
	전업주부	6 (85.7)	-	1 (14.3)	-	-	-
	전문직	5 (27.8)	3 (16.7)	2 (11.1)	2 (11.1)	6 (33.3)	-
	기타	-	-	2 (50.0)	1 (25.0)	-	1 (25.0)
월수입	수입없음	5 (41.7)	-	2 (16.7)	2 (16.7)	2 (16.7)	1 (8.3)
	200만원미만	3 (23.1)	4 (30.8)	1 (7.7)	-	5 (38.5)	-
	200~300만원	3 (17.6)	3 (17.6)	3 (17.6)	3 (17.6)	5 (29.4)	-
	300~400만원	3 (50.0)	1 (16.7)	1 (16.7)	-	1 (16.7)	-
	400~500만원	-	-	-	-	-	-
	500만원이상	2 (50.0)	1 (25.0)	1 (25.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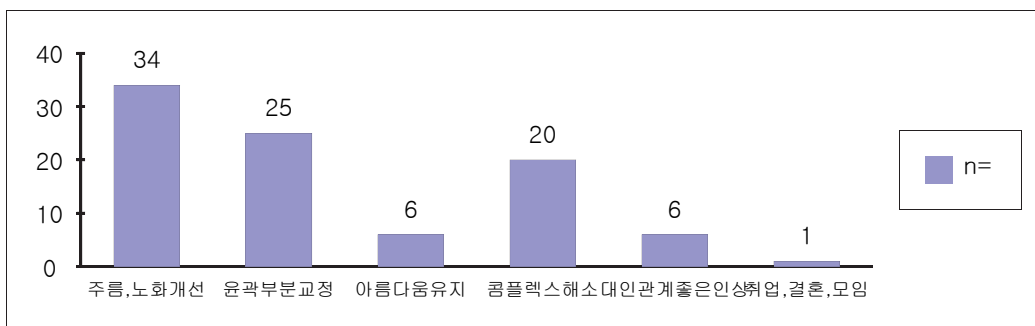
### 3) 보톡스

보톡스 시술을 받은 연구대상자(n=93)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결과를 보면, 사각턱이 4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마주름이 21.4%, 눈가/눈밑 주름 17.5%, 미간주름 14.3%, 입술/입가 0.8%, 목주름 0.8%, 기타 0.8% 등으로 나타났다.

표 10. 보톡스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N(%)
시술 받은 보톡스 시술 부위	이마주름	27 (21.4)
	미간주름	18 (14.3)
	눈가/눈밑 주름	22 (17.5)
	사각턱	56 (44.4)
	입술/입가	1 (.8)
	목주름	1 (.8)
	기타	1 (.8)
	<b>TOTAL</b>	<b>126 (100.0)</b>

보톡스를 받은 주된 이유를 응답자 수로(n=52) 알아보면, 주름/노화개선이 3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윤곽부분 교정 2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보톡스 시술을 받은 동기

<표 11>과 같이 연령별 비교에서 20대는 윤곽부분 교정, 30대 이상은 모두 주름/노화개선이 주된 동기로 나타났다. 직업별 비교에서는 회사원과 자영업, 기타직 등은 윤곽부분 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톡스 시술동기

		주름/노 화개선	윤곽부분 교정	아름다움 유지	콤플렉스 해소	대인관계 좋은 인상	취업/결 혼/모임
연령	20~29세	3 (10.0)	14 (46.7)	3 (10.0)	8 (26.7)	2 (6.7)	-
	30~39세	12 (33.3)	8 (22.2)	2 (5.6)	11 (30.6)	2 (5.6)	1 (2.8)
	40~49세	11 (68.8)	2 (12.5)	1 (6.3)	1 (6.3)	1 (6.3)	-
	50~59세	3 (60.0)	1 (20.0)	-	-	1 (20.0)	-
	60대이상	5 (100.0)	-	-	-	-	-
학력	12년	11 (61.1)	3 (16.7)	-	2 (11.1)	2 (11.1)	-
	14~15년	13 (37.1)	10 (28.6)	3 (8.6)	8 (22.9)	1 (2.9)	-
	16년	7 (26.9)	7 (26.9)	1 (3.8)	7 (26.9)	3 (11.5)	1 (3.8)
	18년이상	3 (23.1)	5 (38.5)	2 (15.4)	3 (23.1)	-	-
직업	회사원	6 (25.0)	8 (33.3)	-	6 (25.0)	4 (16.7)	-
	자영업	2 (33.3)	2 (33.3)	-	1 (16.7)	1 (16.7)	-
	서비스업	1 (11.1)	2 (22.2)	1 (11.1)	4 (44.4)	1 (11.1)	-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40.0)	2 (40.0)	-	1 (20.0)	-	-
	전업주부	15 (78.9)	3 (15.8)	-	-	-	1 (5.3)
	전문직	7 (28.0)	6 (24.0)	4 (16.0)	8 (32.0)	-	-
	기타	1 (25.0)	2 (50.0)	1 (25.0)	-	-	-
월수 입	수입없음	15 (65.2)	8 (34.8)	-	-	-	-
	200만원미만	5 (20.0)	8 (32.0)	2 (8.0)	8 (32.0)	2 (8.0)	-
	200~300만 원	6 (24.0)	5 (20.0)	2 (8.0)	10 (40.0)	2 (8.0)	-
	300~400만 원	3 (37.5)	3 (37.5)	-	1 (12.5)	-	1 (12.5)
	400~500만 원	4 (66.7)	1 (16.7)	-	-	1 (16.7)	-
	500만원이상	1 (20.0)	-	2 (40.0)	1 (20.0)	1 (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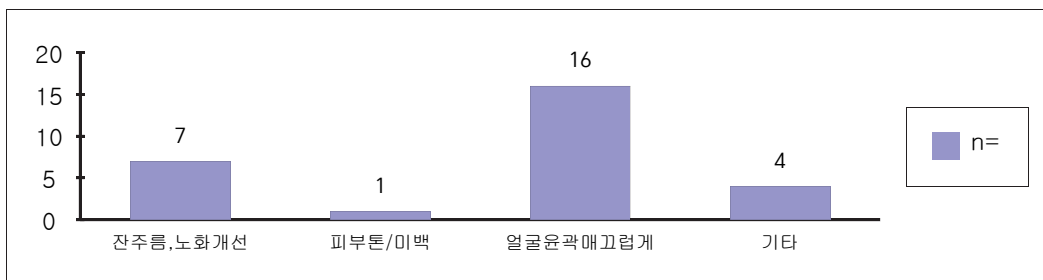
#### 4) 미용주사 시술

미용주사 시술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받았던 미용주사 시술 유형을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V라인/윤곽/달걀주사가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물광주사 23.3%, 백옥주사 10.0%, 신데렐라주사 6.7%, 마늘주사/감초주사 6.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 미용주사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N(%)
시술 받은 레이저 시술 부위	백옥주사	3 (10.0)
	신데렐라주사	2 (6.7)
	마늘주사/감초주사	2 (6.7)
	V라인/윤곽/달걀주사	16 (53.3)
	물광주사	7 (23.3)
TOTAL		30 (100.0)

미용주사를 맞은 주된 이유를 응답자 수로(n=29) 알아보면 ‘얼굴윤곽을 매끄럽게’가 5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잔주름, 노화개선’ 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미용주사 시술을 받은 동기

연령별 비교에서 20대와 30대는 얼굴윤곽을 매끄럽게, 40대와 50대는 잔주름, 노화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별 비교에서는 회사원, 전문직, 기타직 등에서는 얼굴윤곽을 매끄럽게에서, 자영업은 기타

에서, 전업주부는 잔주름, 노화개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미용주사 시술 동기

		잔주름,노화 개선	피부톤/미백	얼굴윤곽을 매끄럽게	기타
연령	20~29세	1 (7.7)	-	10 (76.9)	2 (15.4)
	30~39세	2 (22.2)	1 (11.1)	4 (44.4)	2 (22.2)
	40~49세	3 (60.0)	-	2 (40.0)	-
	50~59세	1 (100.0)	-	-	-
	60대이상				
학력	12년	1 (33.3)	-	1 (33.3)	1 (33.3)
	14~15년	3 (30.0)	-	6 (60.0)	1 (10.0)
	16년	2 (18.2)	-	9 (81.8)	-
	18년이상	1 (25.0)	1 (25.0)	-	2 (50.0)
직업	회사원	-	-	4 (100.0)	-
	자영업	-	-	1 (33.3)	2 (66.7)
	서비스업	2 (50.0)	-	2 (50.0)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1 (50.0)	-	1 (50.0)
	전업주부	3 (75.0)	-	1 (25.0)	-
	전문직	2 (20.0)	-	7 (70.0)	1 (10.0)
	기타	-	-	1 (100.0)	-
월수입	수입없음	3 (50.0)	-	2 (33.3)	1 (16.7)
	200만원미만	1 (16.7)	-	5 (83.3)	-
	200~300만원	1 (16.7)	1 (16.7)	4 (66.7)	-
	300~400만원	1 (25.0)	-	2 (50.0)	1 (25.0)
	400~500만원	1 (33.3)	-	1 (33.3)	1 (33.3)
	500만원이상	-	-	2 (66.7)	1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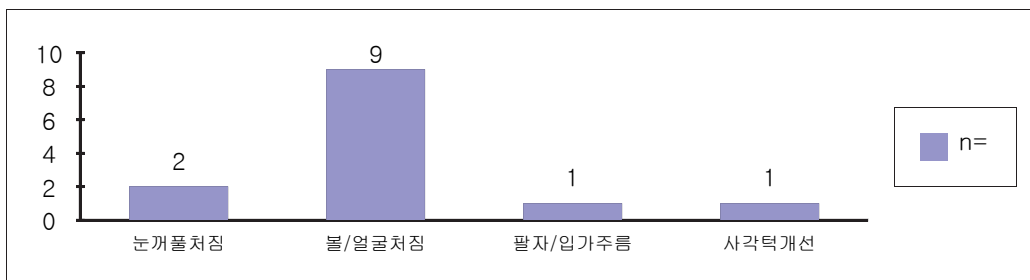
## 5) 실 리프팅

실 리프팅 기술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받은 부위에 대해 중복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팔자주름~턱부위 5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눈가~팔자주름 12.5%, 이마~턱까지 12.5%, 목주름 12.5%, 눈매교정술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실 리프팅 기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N(%)
기술 받은 실 리프팅 기술 부위	눈매교정술	1 (6.3)
	눈가~팔자 주름	2 (12.5)
	팔자주름~턱부위	9 (56.3)
	이마~턱까지	2 (12.5)
	목주름	2 (12.5)
TOTAL		16 (100.0)

실 리프팅을 받은 이유를 응답자 수로(n=13) 알아보면 볼/얼굴 처짐 6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눈꺼풀 처짐 15.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실 리프팅 기술을 받은 동기

연령별 비교에서 30대는 볼/얼굴 처짐에서 가장 높았고, 직업별 비교에서는 전문직이 눈꺼풀 처짐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서는 300~400만원 집단이 볼/얼굴 처짐을 원인으로 가장 많이 기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실 리프팅 시술 동기

		눈꺼풀 처짐	불/얼굴 처짐	팔자/입가 주름	사각턱 개선
연령	20~29세	-	-	-	1 (100.0)
	30~39세	-	7 (100.0)	-	-
	40~49세	2 (50.0)	1 (25.0)	1 (25.0)	-
	50~59세	-	1 (100.0)	-	-
	60대이상	-	-	-	-
학력	12년	-	1 (100.0)	-	-
	14~15년	-	1 (50.0)	1 (50.0)	-
	16년	2 (28.6)	4 (57.1)	-	1 (14.3)
	18년이상	-	3 (100.0)	-	-
직업	자영업	-	1 (100.0)	-	-
	서비스직	-	-	1 (50.0)	1 (50.0)
	학생	-	1 (100.0)	-	-
	전업주부	1 (50.0)	1 (50.0)	-	-
	전문직	1 (14.3)	6 (85.7)	-	-
월수입	수입없음	1 (50.0)	1 (50.0)	-	-
	200만원미만	-	-	-	1 (100.0)
	200~300만원	-	1 (50.0)	1 (50.0)	-
	300~400만원	-	5 (100.0)	-	-
	400~500만원	-	2 (100.0)	-	-
	500만원이상	1 (1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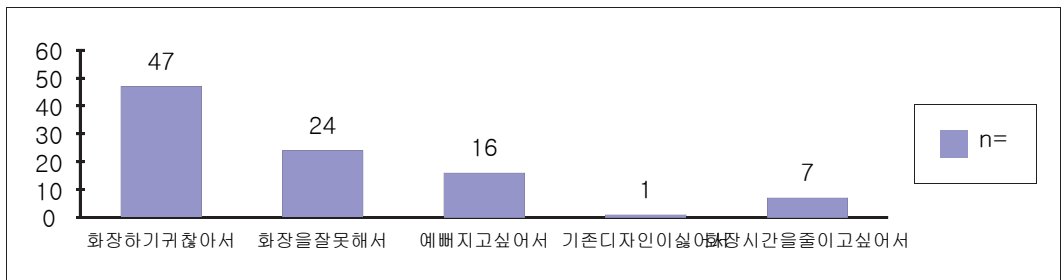
## 6) 반영구 화장

반영구 화장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술받은 부위에 대해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눈썹이 4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이라인 42.7%, 입술라인 전체 3.8%, 헤어라인 1.9%, 언더라인 1.3%, 입술틴트 0.6%, 탈모부위 0.6%, 미인점 0.6% 등으로 나타났다. 박건희(2013)는 눈썹 65.4%, 아이라인 27.6%, 입술 3.7%, 헤어라인 1.9%임 순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한선미(2015)는 눈썹 49.5%, 아이라인 32.6%, 헤어라인 8.2%, 입술 3.7%로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6. 반영구 화장 시술 관련 실태조사(다중응답)

		N(%)
시술 받은 반영구 화장 시술 부위	눈썹	76 (48.4)
	아이라인	67 (42.7)
	언더라인	2 (1.3)
	입술라인 전체	6 (3.8)
	입술틴트	1 (.6)
	헤어라인	3 (1.9)
	탈모부위	1 (.6)
	미인점	1 (.6)
	TOTAL	

반영구 화장을 받게 된 이유를 응답자 수로(n=93) 알아보면 ‘화장하기 귀찮아서’가 4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화장을 잘 못해서’가 25%등으로 나타났다. 한선미(2015)는 반영구 화장 시술 동기에 관해 ‘화장하기 귀찮아서’가 27.0%,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다른 동기부문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반영구 화장 기술을 받은 동기

연령별 비교에서 20대, 30대, 40대,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화장하기 귀찮아서가 제일 응답률이 높았고, 50대에서는 화장을 잘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 비교에서는 전업주부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하면 화장하기 귀찮아서라는 동기가 가장 많고, 전업주부는 화장을 잘 못해서의 응답률이 제일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뻐지고 싶어서는 회사원과 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기를 보이고 있고, 화장시간을 줄이고 싶어서는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반영구 화장 시술 동기

		화장하기 귀찮아서	화장을 잘못해서	예뻐지고 싶어서	기존이 디자인이 싫어서	화장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기타
연령	20~29세	8 (40.0)	6 (30.0)	4 (20.0)	-	2 (10.0)	-
	30~39세	13 (43.3)	8 (26.7)	8 (26.7)	-	1 (3.3)	-
	40~49세	19 (61.3)	5 (16.1)	2 (6.5)	1 (3.2)	3 (9.7)	1 (3.2)
	50~59세	3 (30.0)	4 (40.0)	2 (20.0)	-	1 (10.0)	-
	60대이상	4 (80.0)	1 (20.0)	-	-	-	-
학력	12년	10 (43.5)	8 (34.8)	4 (17.4)	1 (4.3)	-	-
	14~15년	15 (45.5)	11 (33.3)	6 (18.2)	-	-	1 (3.0)
	16년	14 (56.0)	2 (8.0)	3 (12.0)	-	6 (24.0)	-
	18년이상	8 (53.3)	3 (20.0)	3 (20.0)	-	1 (6.7)	-
직업	회사원	9 (60.0)	2 (13.3)	3 (20.0)	-	1 (6.7)	-
	자영업	6 (46.2)	3 (23.1)	2 (15.4)	-	2 (15.4)	-
	서비스업	8 (50.0)	5 (31.3)	2 (12.5)	-	1 (6.3)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1 (50.0)	1 (50.0)	-	-	-
	전업주부	8 (40.0)	9 (45.0)	2 (10.0)	-	1 (5.0)	-
	전문직	13 (50.0)	3 (11.5)	6 (23.1)	1 (3.8)	2 (7.7)	1 (3.8)
	기타	3 (75.0)	1 (25.0)	-	-	-	-
월수	수입없음	8 (47.1)	9 (52.9)	-	-	-	-
	200만원미만	16 (64.0)	7 (28.0)	1 (4.0)	-	-	1 (4.0)
	200~300만 원	10 (38.5)	3 (11.5)	9 (34.6)	-	4 (15.4)	-
	300~400만 원	7 (58.3)	2 (16.7)	3 (25.0)	-	-	-
	400~500만 원	6 (50.0)	2 (16.7)	2 (16.7)	1 (8.3)	1 (8.3)	-
	500만원이상	-	1 (25.0)	1 (25.0)	-	2 (50.0)	-

#### 4. 미용시술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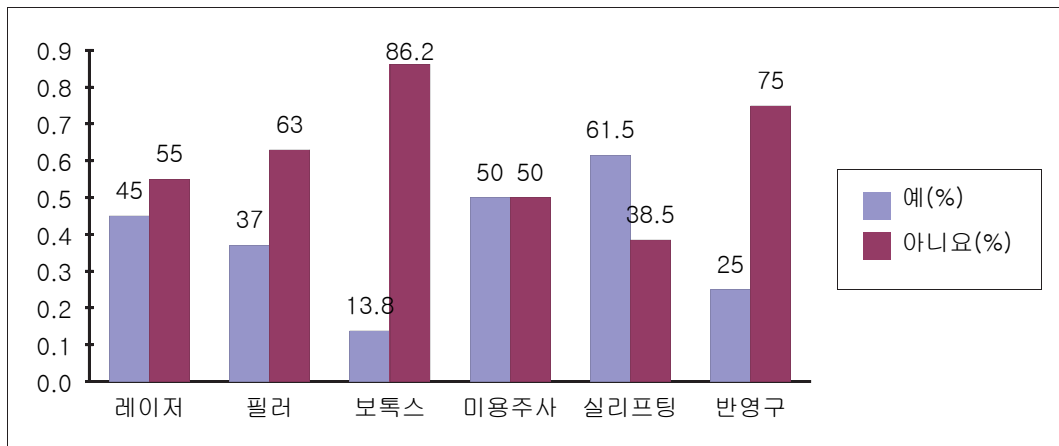
미용시술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아래 <표 18>와 같이 10개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담당자의 서비스가 좋았다’가 3.60±0.872로 가장 높았고, ‘재 시술 의사가 없다’ 2.80±1.353으로 나타났다. 미용시술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시술효과 보다 담당자의 서비스에 더 만족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미용시술 만족도 (n=246)

	구분	평균±표준편차
미용시술 만족도	전반적으로 시술효과에 만족한다	3.38±1.072
	시술 비용이 적당하다	3.32±0.928
	시술로 인한 통증이 없었다	2.91±1.107
	시술기간이 적당하다	3.41±0.803
	담당자의 서비스가 좋았다	3.60±0.872
	외모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3.33±1.153
	자신감을 향상 시켜주었다	3.22±1.178
	주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3.23±1.166
	주변인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3.16±1.239
	재 시술 의사가 없다	2.80±1.358

## 5. 미용시술 종류별 부작용에 관한 실태조사

레이저의 부작용을 경험한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111명중에서 45%로 나타났으며, 필러는 총 52명중 37%, 보톡스는 총 93명중 13.8%, 미용주사는 총 29명중 50%, 실 리프팅은 총 13명중 61.5%, 반영구 화장은 총 93명중 25%로 나타났다. 배근혜(2003)는 보톡스 A치료 후 부작용 경험에 대해 느꼈다가 총 100명중 27%로 본 연구의 보톡스 부작용 경험의 빈도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10>미용시술 종류별 부작용 경험 유/무

1). 레이저에 관한 부작용 실태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부작용의 종류는 피부건조증 및 가려움증이 4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안면홍조 45.9%, 과색소 침착 18.3%, 염증 15.3%, 여드름 등 트러블악화 8.3%, 패인자국(흉터) 6.7%, 색소손실 1.7%, 화상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경제의(1995)은 색소 레이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비교에 관한 연구 중 SPTL(Flashlamp Pumped Pulsed)의 부작용이 전체적으로 9.4%, CVL(구리 증기 레이저)의 부작용이 6.2%로 나타났으며, 수포 형성, 과색소 침착, 저색소 침착, 반흔 형성, 피부표면변화가 각각 관찰되었다. 김대우(2015)는 레이저 시술 후에는 화상, 흉터, 물집, 색소변화,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표 19.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레이저 시술 부작용 종류	과색소 침착	11	18.3
	안면홍조	28	45.9
	피부건조증&가려움증	29	46.0
	색소손실	1	1.7
	여드름 등 트러블악화	5	8.3
	패인자국(흉터)	4	6.7
	화상	1	1.7
	염증	9	15.3
	피부괴사	0	0.0

레이저 시술의 연령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20>과 같다. 레이저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20대와 30대, 40대 등이 각각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작용의 종류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안면홍조와 피부건조증 및 가려움증 등이 가장 많았다, 40대에서는 과색소 침착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20대에서 극

심한 스트레스가 제일 컸다. 우울증은 40대에서, 대인기피증은 30대에서, 재수술에 대한 갈등도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0. 레이저 시술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항목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부작용경험 有/無	있다	19 (48.7)	20 (48.8)	11 (44.0)	-	-
	없다	20 (51.3)	21 (51.2)	14 (56.0)	4 (100.0)	2 (100.0)
부작용 경험 종류	과색소 침착	2 (9.5)	3 (13.6)	6 (37.5)	-	-
	안면홍조	11 (50.0)	13 (56.5)	4 (26.7)	-	-
	피부건조증&가려움증	11 (47.8)	13 (54.2)	5 (33.3)	-	-
	색소손실	1 (4.5)	-	-	-	-
	여드름 등 트러블 악화	3 (13.6)	2 (9.1)	-	-	-
	패인자국(흉터)	1 (4.8)	2 (9.1)	1 (6.3)	-	-
	화상	-	1 (4.8)	-	-	-
	염증	4 (18.2)	3 (14.3)	2 (13.3)	-	-
	피부괴사	-	-	-	-	-
	극심한 스트레스	17 (77.3)	13 (59.1)	6 (42.9)	-	-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	우울증	-	2 (10.0)	4 (28.6)	-	-
	대인기피증	4 (19.0)	5 (25.0)	1 (7.1)	-	-
	불안증세	4 (20.0)	1 (5.3)	3 (21.4)	-	-
	공황장애	-	-	-	-	-
	재수술에 대한 갈등	4 (19.0)	6 (30.0)	1 (7.1)	-	-
	자살충동	-	-	-	-	-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	있다	11 (52.4)	9 (40.9)	11 (78.6)	1 (100.0)	-
	없다	10 (47.6)	13 (59.1)	3 (21.4)	-	-

레이저 시술의 직업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레이저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서비스직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대학생 및 대학원생, 회사원, 자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을 보면, 안면홍조와 피부건조증 및 가려움증에 대부분으로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경우 과색소 침착, 여드름 등 트러블 악화, 염증 등의 다른 부작용의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작용의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모든 직업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전문직의 경우 대인기피증, 불안증세, 재수술에 대한 갈등 등 비교적

적 다양한 부작용을 겪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전업주부와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필러에 관한 부작용 실태

필러시술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험한 부작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멍, 홍반, 붓기 등이 8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통증(두통, 주사부위 통증) 9.5%, 턴들현상(푸르스름해 보임) 9.5%, 석회화 4.8%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건조증 및 가려움증, 피부 처짐, 여드름 등 트러블악화, 염증 등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동원의(2013)은 미용목적으로 필러시술 주입 후 발생한 전체 외안근 마비를 동반한 시력손실 1예를 증례보고 하였고, 정세원의 (2013)은 필러 주입술 후 발생한 이마의 골중에 대해 증례보고 한 바 있다. 김대우(2015)는 필러 주입술 후에 발생하는 가장 많은 부작용은 이물 육아종 반응이라고 보고했다.

표 21. 필러 시술 후 부작용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필러 시술 부작용	멍, 홍반, 붓기	17	81.0
	통증(두통, 주사부위 통증)	2	9.5
	피부건조증&가려움증	0	0.0
	피부처짐	0	0.0
	여드름등 트러블악화	0	0.0
	염증	0	0.0
	석회화	1	4.8
	턴들현상(푸르스름해 보임)	2	9.5
	시술부위 변형	0	0.0
	피부괴사	0	0.0

필러 시술의 연령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22>과 같다.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30대, 40대 등이 각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작용의 종류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멍, 홍반, 붓기가 가장 많은 부작용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20대에서는 턴들현상이 2명 나타났다.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와 관련해서는 20대, 30대는 극심한 스트레스, 40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증세 등을 보이고 있고, 20대에서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재수술에 대한 갈등 등 비교적 다양한 부작용을 보

이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20대와 40대에서 각각 한명씩 나타났다.

표 22. 필터 시술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항목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부작용경험 有/無	있다	3 (15.0)	10 (62.5)	3 (60.0)	1 (25.0)	-	
	없다	17 (85.0)	6 (37.5)	2 (40.0)	3 (75.0)	1 (100.0)	
부작용 경험 종류	멍, 홍반, 붓기	5 (100.0)	8 (80.0)	3 (60.0)	1 (100.0)	-	
	통증(두통, 주사부위 통증)	1 (20.0)	1 (10.0)	-	-	-	
	피부건조증&가려움증	-	-	-	-	-	
	피부처짐	-	-	-	-	-	
	여드름등 트러블악화	-	-	-	-	-	
	염증	-	-	-	-	-	
	석회화	-	1 (10.0)	-	-	-	
	탄들현상 (푸르스름해 보임)	2 (40.0)	-	-	-	-	
	시술부위 변형	-	-	-	-	-	
	피부괴사	-	-	-	-	-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	극심한 스트레스	4 (66.7)	6 (60.0)	2 (50.0)	1 (100.0)	-
		우울증	2 (40.0)	-	1 (25.0)	-	-
		대인기피증	1 (20.0)	-	1 (25.0)	-	-
불안증세		1 (20.0)	1 (10.0)	2 (50.0)	-	-	
공황장애		-	-	-	-	-	
재수술에 대한 갈등		1 (16.7)	-	-	-	-	
자살 충동	-	-	-	-	-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	있다	1 (20.0)	-	1 (20.0)	-	-	
	없다	4 (80.0)	9 (100.0)	4 (80.0)	1 (100.0)	-	

필터 시술의 직업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필터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전체적으로 경험자가 작아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전문직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단에서 부작용 경험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작용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직업에서 멍, 홍조, 붓기가 주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모든 직업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서비스직에서 재수술에 대한 갈등 1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서 우울증 1명, 전문직에서 우울증 1명, 대인기피증 1명, 불안증세 3명 등이 확인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보상을 받은 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회사원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단에서 각각 1명씩 분포하고 있다.

### 3). 보톡스에 관한 부작용 실태

보톡스 부작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타가 3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눈썹이 올라감 22.2%, 안검부종(눈꺼풀이 붓는 현상) 11.1%,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9.5%, 계속된 두통 3.8% 등의 순이다. 배근혜(2003) 연구에서는 눈썹이 올라감 37%,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29.6%, 주름의 과장과 계속된 두통이 7.4%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박현정(2002)은 보톡스 치료 후 두통, 안검하수, 안검부종, 양측 외측 눈썹이 올라가 인상이 사납게 보이기도 하고 치료 부위 외의 주름이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며 주사부위에 멍이 들거나 발음 곤란, 감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Anthony V의 1인(1999)은 보톡스 주입 시 가벼운 통증, 부종, 홍반, 반상출현, 일시적인 마비나 계속되는 두통, 구역질 등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표 23.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보톡스 시술 부작용	눈썹이 올라감	6	22.2
	발음곤란	0	0.0
	안검부종(눈꺼풀이 붓는 현상)	3	11.1
	주름의 과장	0	0.0
	계속된 두통	1	3.8
	안검하수	0	0.0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2	9.5
	기타	8	32.0

보톡스 시술의 연령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24>와 같다. 보톡스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30대 8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부작용 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기타, 30대는 눈썹이 올라감, 안검부종, 주름의 과장, 계속된 두통,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기타 등 비교적 다양한 부작용 형태를 보이고 있고, 40대는 눈썹이 올라감, 60대 이상에서도 눈썹이 올라감, 안검부종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는 20대에서 대인기피증을 겪은 사람이 1명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작용에 대한 보

상여부를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한명씩 나타났다.

표 24. 보톡스 시술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항목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부작용경험 有/無	있다	1 (3.7)	8 (22.9)	1 (6.7)	-	2 (40.0)
	없다	26 (96.3)	27 (77.1)	14 (93.3)	5 (100.0)	3 (60.0)
부작용 경험 종류	눈썹이 올라감	-	2 (15.4)	2 (50.0)	-	2 (100.0)
	발음곤란	-	-	-	-	-
	안검부종(눈꺼풀이 붓는 현상)	-	2 (15.4)	-	-	1 (50.0)
	주름의 과장	-	1 (7.1)	-	-	-
	계속된 두통	-	1 (8.3)	-	-	-
	안검하수	-	-	-	-	-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	2 (22.2)	-	-	-
	기타( )	1 (16.7)	5 (45.5)	2 (50.0)	-	-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	극심한 스트레스	-	-	-	-	-
	우울증	-	-	-	-	-
	대인기피증	1 (16.7)	-	-	-	-
	불안증세	-	-	-	-	-
	공황장애	-	-	-	-	-
	재수술에 대한 갈등	-	-	-	-	-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	있다	-	-	1 (33.3)	1 (50.0)	-
	없다	3 (100.0)	13 (100.0)	2 (66.7)	1 (50.0)	2 (100.0)

보톡스 시술의 직업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보톡스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전체적으로 회사원 2명, 자영업자 1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1명, 전업주부 3명, 전문직 5명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부작용 유형은 회사원은 표정의 부자연스러움과 기타, 자영업자는 눈썹이 올라감, 계속된 두통,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기타 등의 부작용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눈썹이 올라감, 전업주부는 눈썹이 올라감과 안검부종, 전문직은 눈썹이 올라감, 안검부종, 주름의 과장, 기타 등의 부작용을 각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전문직에서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람이 한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회사원과 전업주부 집단에서 각각 1명씩 분포하고 있다.

#### 4). 미용주사에 관한 부작용 실태

미용주사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의 부작용 내용을 보면, 멍, 홍반, 붓기 6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양증(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26.7%,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13.3%, 울렁거림/어지러움 6.7%, 피부발진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 초조, 손떨림, 두통(두통, 주사부위 통증), 백반증/저색소증, 스티븐존스증후군(피부염증이특징, 수포형성, 피부박리등) 등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미용주사에 관한 사례예가 없었다. 학술적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로 미용주사 시술 후 절반이상이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표 25. 미용주사 시술 후 부작용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미용주사 시술 부작용	멍, 홍반, 붓기	10	66.7
	불안, 초조, 손떨림	0	0.0
	울렁거림/어지러움	1	6.7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2	13.3
	두통(두통, 주사부위 통증)	0	0.0
	피부발진	1	6.7
	소양증(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4	26.7
	백반증/ 저색소증	0	0.0
	스티븐존스증후군(피부염증이특징,수포형성,피부박리등)	0	0.0

미용주사 시술의 연령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26>와 같다. 미용주사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20대 7명, 30대 4명, 40대 2명, 50대 1명씩 분포하고 있다. 부작용 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멍, 홍반, 붓기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고, 20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소양증, 피부발진 등이 있었고, 30대에서는 울렁거림/어지러움, 소양증 등이 추가적으로 각각 1명씩, 50대에서는 소양증이 1명씩 추가적으로 있었다.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와 관련해서는 20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불안증세 1명이 있었다. 30대에서는 대인기피증과 불안증세가 각각 1명씩 분포하였고, 40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이 각각 1명씩, 50대에서는 대인기피증을 겪은 사람이 1명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등에서 각각 한명씩 나타났다.

표 26. 미용주사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항목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부작용경험 有/無	있다	7 (53.8)	4 (44.4)	2 (40.0)	1 (100.0)	-
	없다	6 (46.2)	5 (55.6)	3 (60.0)	-	-
부작용 경험 종류	멍, 홍반, 붓기	6 (85.7)	2 (50.0)	2 (66.7)	-	-
	불안, 초조, 손떨림	-	-	-	-	-
	울렁거림/어지러움	-	1 (25.0)	-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2 (28.6)	-	-	-	-
	두통(두통, 주사부위 통증)	-	-	-	-	-
	피부발진	1 (14.3)	-	-	-	-
	소양증(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2 (28.6)	1 (25.0)	-	1 (100.0)	-
	백반증/ 저색소증	-	-	-	-	-
	스티븐존스증후군 (피부염증이특징,수포형 성,피부박리등)	-	-	-	-	-
	극심한 스트레스	4 (57.1)	-	1 (33.3)	-	-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	우울증	-	-	-	-	-
	대인기피증	-	1 (25.0)	1 (33.3)	1 (100.0)	-
	불안증세	1 (14.3)	1 (25.0)	-	-	-
	공황장애	-	-	-	-	-
	재수술에 대한 갈등 자살충동	-	-	-	-	-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	있다	1 (33.3)	1 (33.3)	1 (33.3)	1 (100.0)	-
	없다	2 (66.7)	2 (66.7)	2 (66.7)	-	-

미용주사 시술의 직업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26>과 같다. 미용주사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전체적으로 회사원 3명이 멍, 홍반, 붓기, 자영업자 1명은 울렁거림/어지럼증, 서비스직 2명은 멍, 홍반, 붓기, 일상생활에 지

장을 줌, 소양증, 대학생 및 대학원생 1명은 명, 흥반, 붓기, 전업주부 2명, 전문직 5명, 명, 흥반, 붓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줌, 피부발진, 소양증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부작용의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회사원은 불안증세, 서비스직은 극심한 스트레스, 전업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전문직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불안증세 등의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이 각각 1명씩, 전문직에서 2명이 있었다.

5). 실 리프팅에 관한 부작용 실태

본 연구에서 붓기/멍/당김 현상 61.5%, 좌우비대칭과 피부함몰과 우는 현상 15.4%, 과교정 7.7%로 김동석(2015)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동석(2015)은 슈라마니츠 등의 사례보고 중 과교정 9.5%, 선상출혈 9.5%, 피부함몰 14.6%, Lyska 등도 350명의 시술 결과 보고 중 실 노출이 52명, 비대칭이 10명외에 출혈, 부종, 불편감, 홍반, 멍, 실 비쳐 보임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표 27. 실 리프팅 시술 후 부작용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실 리프팅 시술 부작용	붓기, 멍, 당김현상	8	61.5
	좌우 비대칭	2	15.4
	피부의 일부 함몰 및 우는 현상	2	15.4
	입주변 실 노출	0	0.0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	0	0.0
	실이 녹지 않는 경우	0	0.0
	실 삽입부분 염증	0	0.0
	실이 끊어지는 경우	0	0.0
	효과가 적다	0	0.0
	효과가 너무 과하다	1	7.7

실 리프팅 시술의 연령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28>과 같다. 실 리프팅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30대 2명, 40대 4명, 50대 1명씩 분포하고 있다. 부작용 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에서는 붓기, 멍, 당김 현상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고,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와 관련해서는 30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보면 30대, 40대, 50대 등에서 각각 한명씩 나타났다.

표 28. 실 리프팅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항목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대이 상
부작용경 험 有/無	있다	-	3 (42.9)	4 (100.0)	1 (100.0)	-
	없다	1 (100.0)	4 (57.1)	-	-	-
부작용 경험종류	붓기, 멍, 당김 현상	-	3 (100.0)	4 (100.0)	1 (100.0)	-
	좌우 비대칭	-	2 (66.7)	-	-	-
	피부의 일부 함몰 및 우는 현상	-	2 (66.7)	-	-	-
	입 주변 실 노출	-	-	-	-	-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	-	-	-	-	--
	실이 녹지 않는 경우	-	-	-	-	-
	실 삽입부분 염증	-	-	-	-	-
	실이 끊어지는 경우	-	-	-	-	-
	효과가 적다	-	-	-	-	-
	효과가 너무 과하다	-	1 (33.3)	-	-	-
	극심한 스트레스	-	2 (66.7)	2 (50.0)	-	-
	우울증	-	-	1 (25.0)	-	-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	대인기피증	-	1 (33.3)	-	1 (100.0)	-
	불안증세	-	2 (66.7)	1 (25.0)	-	-
	공황장애	-	-	-	-	-
	재수술에 대한 갈등	-	-	-	-	-
	자살충동	-	-	-	-	-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	있다	-	1 (50.0)	1 (25.0)	1 (100.0)	-
	없다	-	1 (50.0)	3 (75.0)	-	-

실 리프팅 시술의 직업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실 리프팅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붓기, 멍, 당김 현상의 경우 서비스직 1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1명, 전업주부 2명, 전문직 4명 등이 있었고, 좌우비대칭과 피부의 일부 함몰 및 우는 현상은 전업주부와 전문직에서 각각 1명씩 분포하고 있었다.

부작용의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는 서비스직 1명, 전업주부 2명, 전문직 1명 등이 있고, 우울증은 전문직에서 1명, 대인기피증은 전업주부와 전문직에서 각각 1명씩, 불안증세도 전업주부 1명, 전문직 2명 등으로 각각 분포하고 있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서비스직 1명, 전문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6). 반영구 화장에 관한 부작용 실태

반영구 화장의 부작용 내용을 보면, 색소제거의 문제가 5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염증 36.7%, 불만족(디자인, 색상 등) 24.2%, 붓기, 진물, 딱지, 멍(시술3일후) 15.6%, 켈로이드 형성 3.1%, 색소 성분인 중금속으로 인한 MRI 촬영 문제 3.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양증(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육아종, 안구질환, 단순포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미(2015)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술 후 불만족 이용자가 가장 많음을 볼 수 있었고, 부작용에 관해서는 7.3% 비교적 적은 데이터가 나와서, 본 연구와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29. 반영구 화장 시술 후 부작용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반영구 화장 시술 부작용	불만족(디자인, 색상 등)	8	24.2
	색소제거의 문제	20	58.8
	붓기, 진물, 딱지, 멍(시술3일후)	5	15.6
	소양증(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0	0.0
	육아종	0	0.0
	켈로이드 형성	1	3.1
	안구질환	0	0.0
	단순포진	0	0.0
	색소 성분인 중금속으로 인한 MRI 촬영 문제	1	3.1
	염증	11	36.7

반영구 화장 시술의 연령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표 30>과 같다. 반영구 화장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8명, 60대 이상 2명 분포하고 있다. 부작용 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색소제거의 문제와 염증에서, 30대에서는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 색소제거의 문제, 켈로이드 형성, 염증 등에서, 40대에서는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 색소제거의 문제, 붓기, 진물, 딱지, 멍, 색소 성분인 중금속으로 인한 MRI 촬영

영문제, 염증 등에서, 60대 이상에서는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 색소제거의 문제, 염증 등에서 각각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와 관련해서는 20대에서는 대인기피증과 자살충동이 각각 1명씩, 30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에서 각각 1명씩, 그리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서 각각 2명씩 분포하고 있다. 40대에서는 자살충동이 2명, 50대에서도 자살충동이 1명이 있었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20대, 30대, 50대 등에서 각각 1명씩, 40대에서 2명이 나타났다.

표 30. 반영구 화장 시술부문에 관한 연령별 부작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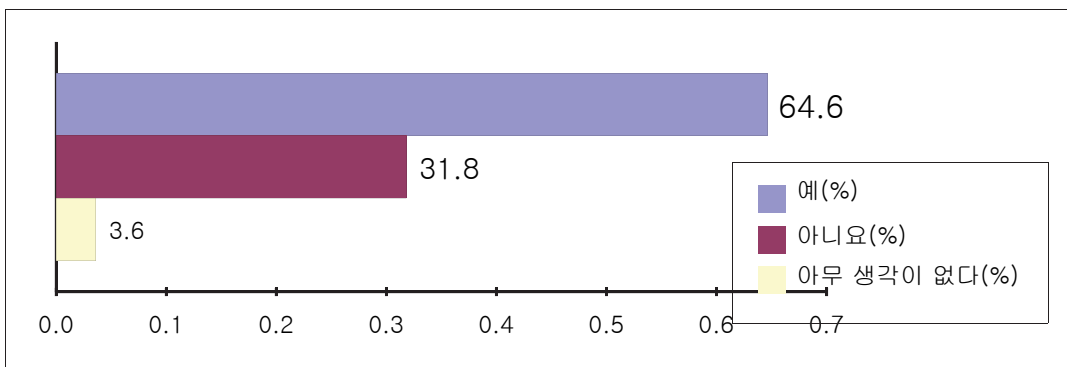
항목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부작용경험 有/無	있다	2 (10.0)	11 (40.7)	8 (26.7)	-	2 (40.0)
	없다	18 (90.0)	16 (59.3)	22 (73.3)	10 (100.0)	3 (60.0)
부작용 경험종류	불만족(디자인,색상등)	-	3 (18.8)	4 (36.4)	-	1 (100.0)
	색소제거의 문제	2 (66.7)	10 (62.5)	7 (63.6)	-	1 (50.0)
	붓기,진물,딱지,멍 (시술3일후)	-	-	5 (45.5)	-	-
	소양증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	-	-	-	-
	육아종	-	-	-	-	-
	켈로이드 형성	-	1 (6.7)	-	-	-
	안구질환	-	-	-	-	-
	단순포진	-	-	-	-	-
	색소 성분인 중금속으로 인한 MRI 촬영 문제	-	-	1 (9.1)	-	-
	염증	1 (33.3)	4 (30.8)	5 (50.0)	-	1 (50.0)
	극심한 스트레스	-	1 (7.7)	-	-	-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	우울증	-	2 (15.4)	-	-	-
	대인기피증	1 (33.3)	2 (15.4)	-	-	-
	불안증세	-	-	-	-	-
	공황장애	-	1 (7.7)	-	-	-
	재수술에 대한 갈등	-	-	-	-	-
	자살충동	1 (50.0)	1 (10.0)	2 (20.0)	1 (50.0)	-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	있다	1 (50.0)	1 (10.0)	2 (20.0)	1 (50.0)	-
	없다	1 (50.0)	9 (90.0)	8 (80.0)	1 (50.0)	2 (100.0)

반영구 화장 시술의 직업별 부작용 실태를 보면 반영구 화장 시술에 따른 부작용 경험은 전체적으로 회사원은 모두 색소제거의 문제에서 4명이, 자영

업은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과 붓기, 진물, 딱지, 멍 등이 각각 1명씩, 색소제거의 문제가 2명 분포하였다. 서비스직의 경우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과 붓기, 진물, 딱지, 멍, 색소 성분인 중금속으로 인한 MRI 촬영 문제 등이 각각 1명씩, 색소제거의 문제가 5명 분포하였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과 색소제거의 문제, 켈로이드 형성 등에서 각각 1명씩 분포하였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과 색소제거의 문제 등에서 각각 2명씩, 붓기, 진물, 딱지, 멍에서 1명 분포하였다. 전문직에서는 디자인, 색상 등의 불만족과 붓기, 진물, 딱지, 멍 등이 각각 2명씩, 색소제거의 문제가 6명 분포하였다. 부작용의 경험 후 심리상태를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는 전문직에서 1명, 우울증은 회사원과 자영업에서 각각 1명씩, 대인기피증은 회사원에서 1명, 전문직에서 2명 분포하고 있다. 공황장애는 전문직에서 1명 분포하였으며, 자살충동은 회사원,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에서 각각 1명씩, 전문직에서 2명이 분포하였다. 부작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보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회사원 1명, 서비스직 1명, 전업주부 1명, 전문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 6. 미용시술 부작용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미용시술들이 의료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림 10>와 같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4.6%(n=117)로 가장 많고, 모른다는 응답은 31.8%(n=87),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3.6%(n=10)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11> 미용시술의 부작용 인식 여부

### 1) 부작용 인식에 관한 연령별, 직업별 실태조사

연령별 부작용 인식에 대한 실태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의료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률은 20대가 59.0%, 30대가 68.7%, 40대가 67.2%, 50대가 70.6% 등으로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층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모른다’는 응답률이 62.5%로 제일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 정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중’이라는 응답률이 제일 높았으나, 50대 이상은 ‘하’의 응답률이 제일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은 50대에서 가장 많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고지 여부에 대해 ‘사전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높은데, 20대가 59.8%, 30대가 60.6%, 40대가 71.9%, 50대가 66.7%, 60대 이상이 71.4% 등으로 나타났다. 시술동의서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20대가 50.0%, 30대가 53.7%, 40대가 69.1%, 50대가 71.4%, 60대 이상이 87.5%로 연령이 높을수록 시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술동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는 ‘알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주변에서 작성을 권유’에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서로의 합의점’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알아야 할 권리’는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대우(2015)는 비피부과 의료인에게 시술받은 환자 중 95.6% 시술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이 동의서 작성 절차가 없었으며, 비 의료인 또한, 100%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했다.

표 31. 부작용 인식에 대한 연령별 실태 조사

항목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의료시술의	알	49 (59.0)	68 (68.7)	45 (67.2)	12 (70.6)	3 (37.5)
	모름	31 (37.3)	24 (24.2)	22 (32.8)	5 (29.4)	5 (62.5)
부작용 존재여부	아무생각이 없다	3 (3.6)	7 (7.1)	-	-	-
	상	7 (9.7)	5 (5.8)	5 (8.6)	2 (13.3)	-
부작용 정도에 대한 인식	중	39 (54.2)	50 (58.1)	33 (56.9)	6 (40.0)	2 (33.3)
	하	26 (36.1)	31 (36.0)	20 (34.5)	7 (46.7)	4 (66.7)
	받음	33 (40.2)	39 (39.4)	18 (28.1)	5 (33.3)	2 (28.6)
사전고지 여부	받지못함	49 (59.8)	60 (60.6)	46 (71.9)	10 (66.7)	5 (71.4)
	함	35 (50.0)	38 (46.3)	17 (30.9)	4 (28.6)	1 (12.5)
시술동의서 작성 여부	하지않음	35 (50.0)	44 (53.7)	38 (69.1)	10 (71.4)	7 (87.5)
	서로의 합의점	10 (12.7)	23 (27.1)	13 (21.3)	2 (13.3)	-
시술동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알아야 할 권리	65 (82.3)	57 (67.1)	41 (67.2)	11 (73.3)	2 (33.3)
	전문적으로 보여짐	2 (2.5)	-	2 (3.3)	-	-
대신	믿음을 줌	1 (1.3)	5 (5.9)	4 (6.6)	1 (6.7)	-
	주변에서 작성 권유	1 (1.3)	-	-	-	3 (50.0)
	기타	-	-	1 (1.6)	1 (6.7)	1 (16.7)

부작용 인식과 관련해서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32>과 같다.

의료시설의 부작용 존재에 대해 모든 직업군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모르거나 아무생각이 없다는 응답률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문직에 가장 높았고, 모른다는 응답률은 회사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작용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상’이라는 응답은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이라는 응답은 모든 직종에서 비슷하게 5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라는 응답은 자영업과 전업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사전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지를 받은 경우는 자영업이 제일 높았고,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회사원과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술동의서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 시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술동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서로의 합의점이라는 인식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문직, 기타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알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은 회사원에서 가장 높았다.

표 32. 부작용 인식에 대한 직업별 실태 조사

항목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대학생 및 대학원 생	전업주 부	전문직	기타
의료시 술의 부작용 존재여 부	없다	32 (56.1)	15 (62.5)	24 (61.5)	6 (66.7)	27 (57.4)	64 (72.7)	9 (90.0)
	모름	24 (42.1)	8 (33.3)	13 (33.3)	2 (22.2)	18 (38.3)	21 (23.9)	1 (10.0)
	아무생각이 없다	1 (1.8)	1 (4.2)	2 (5.1)	1 (11.1)	2 (4.3)	3 (3.4)	-
부작용 정도에 대한 인식	상	3 (6.3)	2 (9.5)	5 (14.3)	1 (11.1)	1 (2.6)	5 (6.5)	2 (22.2)
	중	27 (56.3)	10 (47.6)	19 (54.3)	5 (55.6)	21 (55.3)	43 (55.8)	5 (55.6)
	하	18 (37.5)	9 (42.9)	11 (31.4)	3 (33.3)	16 (42.1)	29 (37.7)	2 (22.2)
사전고 지 여부	받음	15 (27.3)	11 (50.0)	13 (33.3)	4 (44.4)	13 (28.9)	34 (39.1)	7 (70.0)
	받지못함	40 (72.7)	11 (50.0)	26 (66.7)	5 (55.6)	32 (71.1)	53 (60.9)	3 (30.0)
시술동 의서 작성 여부	함	20 (41.7)	4 (18.2)	12 (38.7)	4 (50.0)	15 (35.7)	33 (48.5)	7 (70.0)
	하지않음	28 (58.3)	18 (81.8)	19 (61.3)	4 (50.0)	27 (64.3)	35 (51.5)	3 (30.0)
시술동 의서 필요성 에 대한 인식	서로의 합의점	7 (13.0)	3 (15.8)	5 (15.2)	2 (25.0)	6 (14.3)	22 (27.5)	3 (30.0)
	알아야 할 권리	44 (81.5)	15 (78.9)	25 (75.8)	6 (75.0)	31 (73.8)	48 (60.0)	7 (70.0)
	전문적으로 보여짐	1 (1.9)	-	2 (6.1)	-	-	1 (1.3)	-
	믿음을 줌	2 (3.7)	-	1 (3.0)	-	-	8 (10.0)	-
	주변에서 작성 권유	-	1 (5.3)	-	-	3 (7.1)	-	-
	기타	-	-	-	-	2 (4.8)	1 (1.3)	-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시술 유경험자를 통한 시술 종류와 원인을 ‘부작용 경험’과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로 분류하였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는 미용시술 유경험자로 전체 275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평균 연령이 35.96세로 나타났다.
2. 미용시술 유경험자 275명에게 시술한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레이저가 2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시술 장소로는 전문의 피부과가 45.5%, 미용시술 정보경로는 지인소개(가족/동료/친구)가 46.9%, 시술 장소를 결정할 때는 전문성&신뢰성이 42.5%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용시술 결정시 장애요인으로서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52.0%로 가장 많았다.
3. 미용시술 종류에 따라 시술부위별 차이를 보이고, 시술동기에 의해 연령별,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레이저의 경우 피부(얼굴전체)가 88%로 주원인은 ‘색소침착’으로 보여 지고, 필러의 경우 팔자/불이 27.4%로 ‘주름·노화개선’, 보톡스는 시술 부위가 사각턱이 4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주원인은 예상외로 ‘주름·노화개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주사는 V라인/윤곽/달걀주사가 53.3%로 높았으며 ‘얼굴윤곽을 매끄럽게’ 주원인으로 보여 진다. 실 리프팅의 경우는 팔자주름~턱 부위까지가 56.3%로 ‘불/얼굴 처짐’, 반영구화장은 눈썹이 48.4%로 ‘화장하기 귀찮아서’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4. 미용시술 만족도 조사결과로는 ‘담당자의 서비스가 좋았다’가  $3.60 \pm 0.872$ 로 가장 높았으며, ‘재 시술 의사가 없다’가  $2.82 \pm 1.353$ 으로 대부분 시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5. 미용시술 부작용 경험 있다고 응답한 경우 레이저는 45%, 필러는 37%, 보

특스는 13.8%, 미용주사는 50%, 실 리프팅은 61.5%, 반영구 화장은 25%로 보여 지고, 부작용 경험 후 극심한 스트레스나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미용시술의 부작용 가능성의 인식정도는 ‘알고 있다’가 64.6%이고, ‘모른다’가 31.8%, ‘아무생각이 없다’는 3.6%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술시 시술 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의 동의서 작성 절차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용시술을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미용성형이 아닌 미용시술임에도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파악하였다. 그러나 미용시술 경험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시술동의서 작성 부문에서는 매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아직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사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부작용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려면 미용시술 유경험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시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고자 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미용시술 부작용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미용시술 부작용 실태에 관해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최창원, 노상미, 양혜민, 강태석, 김태구, 박준호, 이다현, 엄세준, 이진영, 배근량, 정철, 정해관, 임현술. (2004).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미용시술 경험률과 건강장해에 대한 인식, 동국의학 11(1)
- 최지호. (1994). 피부과 영역에서의 레이저. 대한피부과학회지, Vol.32, p.p 205-216
- 박수하. (2014). 레이저시술 사후관리를 위한 화장품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Vol.8, p.43-51
- 윤영애, 안성아. (2002). 보톡스가 피부미용과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 진주전문대학 논문집, Vol.25, p.95-107
- 박현정. (2002). 보툴리눔 독소 시술. 가정의학회지, Vol.23, p.1181-1187
- 최경희. (2015). 나는 오늘도 예뻐진다. 원앤원스타일, p.150-151
- 백동원, 장인범, 김재석, 이주화, 최진. (2013). 미간에 히알루론산 필러 주입 후 발생한 전체 외안근마비를 동반한 시력소실 1예. 대한안과학회지, Vol.54, No.6, p.971-976
- 배근혜. (2003). Botulinum toxin A (보톡스 A)에 의한 얼굴주름 개선의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미용학회지, 통권 제2호 p.19-27
- 김현조. (2016). 보툴리눔 독소와 필러 시술 후 발생하는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들, Filler & Toxin, Vol.2 No.4, p.32
- 계영철. (2005).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 대한피부과학회, 제57차 추계학술대회, SVI-3

- 강원형. (2000) 기미치료에서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의 효과 및 부작용. 대한피부과학회, 제52차 춘계학술대회, p.77
- 이수상. (2016). 치명적인 필러부작용 방지를 위한 Facial artery의 최신지견. special serise, p.31
- 김동석. (2013). 실을 이용한 face lifting & 부작용 해결법. 대한피부과학회, 의사회: 보톡스 필러 실 p.1-4
- 이우진, 장성은. (2013). 보툴리눔 독소 주입술에 따른 부작용. 대한피부항노화연구회, No.3 Summer Workshop
- 하성윤. (2015). 성형 필러 가이드 라인에 대한 논평. Filler & Toixn, Vol.2 No.3, p.6
- 김수현. (2014).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외모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미. (2015). 반영구 화장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이정은. (2014). 메디컬 스킨케어의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선주. (2011).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우. (2015).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피부과적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 65예에 대한 고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건희. (2013). 반영구화장의 시술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정세원, 권태광, 심현수, 이숙경. (2013) 필러 주입술 후 발생한 이마의 골종.  
대한피부과학지, Vol.51, No.7, p.569

성경제, 이상협, 이화정, 고재경, 최지호. (1995). 구리 증기 레이저와  
Flashlamp Pumped Pulsed 색소 레이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비교에 관  
한 연구. 대한피부과학지, Vol.33, No.5, p.815-820

박경열, 박현선, 윤현선, 조소연. (2013) 실리콘팅 및 필러 주입에 의해 발생한  
안면부 이물 육아종. 대한피부과학지, Vol.52, No.6, p.443-444

김은경. (2011). 실버세대 여성의 피부미용 및 미용성형에 관한 인식 및 행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은경. (2011). 반영구 화장 종사자의 혈행성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hony V. Benedetto, Do. (1999). The cosmetic uses of Botulinum toxin  
type A.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38, 641-655

Lisa Danielle Grunebaum, MD, Inja Bogdan Allemann, MD, Steven Dayan,  
MD, stephen Mandy, MD, And Leslie Baumann, MD. (2009). The Risk of  
Alar Necrosis Associated with Dermal Filler Injection. the American  
Society for Dermatologic Surgery, Inc, 35, 1635-1640

권용현. Google (<http://ppss.kr/archives/20323>)

Naver (<http://blog.naver.com/rinhart/220586920652>)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의학정보, 가정의학과

한국 소비자원. (2016). 뽕띠성형시술 보도자료

# ABSTRACT

## A Study of the Awareness of Side Effects of Facial Skin Cosmetic Procedure

Hwang Cheong-ha  
Skincare and coordination major  
Dept. of Convergent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t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experience on the side-effect of beauty treatment and whether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auty treatment were aware of side-effect and also to arouse caution on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 of beauty treatment.

Subjects in the research were women aged from the 20s to the 60s who resided in Seoul and Gyeonggi-do. Total 275 copies of survey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 was used implementing the frequency analysis, cross frequency analysis, and satisfaction score by utiliz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3.0.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ng 275 women with an experience of beauty treatment, 'dermatology specialis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s 45.5% as the place for providing beauty treatment followed by 21.8% in 'plastic surgery hospital,' 13.5% in 'general skin care unit,' 11.6% in 'skin care department in the hospital,' 4.4% for 'others,' and 3.3% for 'skin care room in the oriental medical clinic.'

As for the route of obtaining information about beauty treatment, 'family members/friends/co-workers'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s 46.9% followed by 18.2% for 'mass media' and 'dermatology hospital,' 13.4% for 'plastic surgery hospital,' and 4.4% for 'skin care room.'

As for what was to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place for beauty treatment, 'specialty and reliability'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s 42.5% followed by 33.1% for 'areas recommended by friends,' 10.5% for 'areas near house or work,' 8.7% for 'awareness,' 2.5% for 'price,' and 1.8% for 'areas convenient to park at or use transportation.' Therefore, there was correlation with routes fo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beauty treatment.

As for hindering factors when deciding to have beauty treatment, 'concern on side effec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s 52.0% followed by 18.5% for 'concern on whether there was not much room for improvement after treatment,' 10.2% for 'no time to have treatment,' 2.2% for 'others,' and 1.1% for 'negative review on those who had beauty treatment.'

As for motivation to have beauty treatment, 'supplementation of weakness on the physical areas due to aging'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s 26.2% followed by 24.0% for 'lack of confidence on appearance,' 21.8% for 'opportunity of better social life,' and 14.2% for 'supplementation of weakness on the physical area such as scar.'

There was a difference on each area of treatment according to types of beauty treatment and also on each age group and career depending on the motivation of treatment. There was a similar difference on the experience of side-effect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after the treatment. It turned out that 64.6% of subjects in the study 'were' aware of

side-effect of beauty treatment. However, 58.5% of them turned out 'not to' prepare for notification in advance and agreement form of treatment. Hereupon, there was a difference on the frequency of experience on side-effect after beauty treatment depending on types of beauty treatment.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in psychological conditions after experiencing the side-effect.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auty treatment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amount of burden for exposing their experience of treatment. Therefore, there was much restriction on proceeding the research with aforementioned topics. Therefore, it seems that advanced data analysis is required on the condition of side-effect of beauty treatment in the future by having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auty treatmen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search.

## 부 록

### 안면 피부 미용시술 유경험자의 부작용 심각성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유경험자의 안면 피부 미용시술 부작용 심각성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학술 연구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 \_\_\_\_\_ (서명)

2016년 01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지도교수 배 현 숙

황 청 하 드림

**다음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재학생 포함)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자영업                    ③ 서비스직                    ④ 대학생 및 대학원생  
⑤ 전업주부                    ⑥ 전문직                    ⑦ 기타(                    )
5.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① 수입 없음                    ② 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이상
6.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이혼, 사별, 독신 등]
7. 귀하의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일 (                    )시간 정도
8.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매일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주 3~4회  
⑥ 주 5회이상                    ⑦ 월 1~2회
9. 귀하의 음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음주하는 분만 응답]  
① 소주 1~2잔                    ② 소주 반 병 정도                    ③ 소주 한 병 이상                    ④ 소주 두 병 이상
10. 귀하의 흡연량은 1일 기준 어느 정도입니까?  
① 흡연하지 않는다.                    ② 1일(                    )회 정도                    ③ 기타(                    )
11. 귀하의 하루 식사와 간식의 횟수는?  
식사 (                    )회 정도                    간식 (                    )회 정도
12. 귀하는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1컵=200ml 기준]  
① 1컵 미만                    ② 1~2컵                    ③ 3~4컵                    ④ 5~6컵                    ⑤ 7컵 이상
13. 귀하는 평소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매일                    ③ 주 (                    )회 정도



**이번 문항은 레이저시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가 받은 레이저 시술의 부위는?[중복체크 가능-선호도 순으로]

- ① 눈가( )      ② 코( )      ③ 턱( )      ④ 이마( )  
 ⑤ 피부(얼굴전체)( )    ⑥ 두피( )      ⑦ 기타( )

2. 귀하가 받은 레이저 시술의 부위별 원인은?(1순위만)

- ① 색소침착(기미&반점)    ② 주름, 노화개선    ③ 제모    ④ 취업, 결혼, 모임  
 ⑤ 모공&흉터      ⑥ 여드름      ⑦ 탈모      ⑧ 기타( )

3. 귀하는 레이저 시술을 부위별로 몇 번을 했습니까?[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이상    ⑦ 기타( )

· 눈가( ) · 코( ) · 턱( ) · 이마( ) · 피부(얼굴전체( ))  
 · 두피( ) · 기타( )

4. 귀하가 받은 레이저 시술의 주기는?[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주일에 한번    ② 2주에 한번    ③ 3주에 한번    ④ 4주에 한번  
 ⑤ 3개월에 한번    ⑥ 6개월에 한번    ⑦ 1년에 한번    ⑧ 기타( )

· 눈가( ) · 코( ) · 턱( ) · 이마( ) · 피부(얼굴전체( ))  
 · 두피( ) · 기타( )

5. 귀하는 레이저 시술을 언제부터 했습니까?[첫 시술]

- ① 10대    ② 20대 초반    ③ 20대~30대    ④ 30대~40대    ⑤ 40대~50대  
 ⑥ 60대 이후      ⑦ 기타( )

6. 귀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7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만족도 문항으로 이동)

7. 다음은 레이저 부작용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세요.

	내용	①있다	②없다
1	과색소 침착	①	②
2	안면홍조	①	②
3	피부건조증&가려움증	①	②
4	색소손실	①	②
5	여드름등 트러블악화	①	②
6	패인자국(흉터)	①	②
7	화상	①	②
8	염증	①	②
9	피부괴사	①	②

8. 다음은 부작용 경험 후 심리상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세요.

(7번 문항 모두 '없다'에 체크했을 경우 이 문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내용	①있다	②없다
1	극심한 스트레스	①	②
2	우울증	①	②
3	대인기피증	①	②
4	불안증세	①	②
5	공황장애	①	②
6	재수술에 대한 갈등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9. 귀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심리적, 물리적)을 받으셨습니까? (7번 문항 모두 '없다'에 체크했을 경우 이 문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예

② 아니요

**이번 문항은 필러시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가 받은 필러 시술의 부위는?[중복체크 가능-선호도 순으로]

- ① 눈가/미간( ) ② 눈 밑( ) ③ 아래턱( ) ④ 팔자/볼( ) ⑤ 목( )  
 ⑥ 입술( ) ⑦ 이마( ) ⑧ 기타( ) ( )

2. 귀하가 받은 부위별 원인은?(1순위만)

- ① 흉터치료 ② 주름, 노화개선 ③ 윤곽부분 교정 ④ 아름다움 유지  
 ⑤ 취업,결혼,모임 ⑥ 콤플렉스 해소 ⑦ 기타( )

3. 귀하는 필러 시술을 부위별로 몇 번을 했습니까? [(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이상 ⑦ 기타( )

· 눈가/미간( ) · 눈밑( ) · 아래턱( ) · 팔자/볼( ) · 목( )  
 · 입술( ) · 이마( ) · 기타( )

4. 귀하가 받은 필러 시술의 주기는?[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주일에 한번 ② 2주에 한번 ③ 3주에 한번 ④ 4주에 한번  
 ⑤ 3개월에 한번 ⑥ 6개월에 한번 ⑦ 1년에 한번 ⑧ 기타( )

· 눈가/미간( ) · 눈밑( ) · 아래턱( ) · 팔자/볼( ) · 목( )  
 · 입술( ) · 이마( ) · 기타( )

5. 귀하는 필러 시술을 언제부터 했습니까?[첫 시술]

- ① 10대 ② 20대 초반 ③ 20대~30대 ④ 30대~40대 ⑤ 40대~50대  
 ⑥ 60대 이후 ⑦ 기타( )

6. 귀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7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만족도 문항으로 이동)



**이번 문항은 보톡스 시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가 받은 보톡스 시술의 부위는?[중복체크 가능-선호도 순으로]

- ① 이마주름( ) ② 미간주름( ) ③ 눈가/눈 밑 주름( ) ④ 콧등주름( )  
 ⑤ 사각턱( ) ⑥ 입술/입가( ) ⑦ 목주름( ) ⑧ 기타( )( )

2. 귀하가 보톡스를 받게 된 원인은?(1순위만)

- ① 주름/노화개선 ② 윤곽부분교정 ③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④ 콤플렉스 해소  
 ⑤ 대인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⑥ 취업/결혼/모임 ⑦ 기타( )

3. 귀하는 보톡스 시술을 부위별로 몇 번을 했습니까?

[(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이상 ⑦ 기타( )

· 이마주름( )	· 미간주름( )	· 눈가/눈밑주름( )	· 콧등주름( )
· 사각턱( )	· 입술/입가( )	· 목주름( )	· 기타( )

4. 귀하가 받은 보톡스 시술의 주기는?[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6개월에 한번 ② 1년에 한번 ③ 2년에 한번 ④ 3~5년에 한번 ⑤ 기타( )

· 이마주름( )	· 미간주름( )	· 눈가/눈밑주름( )	· 콧등주름( )
· 사각턱( )	· 입술/입가( )	· 목주름( )	· 기타( )

5. 귀하는 보톡스 시술을 언제부터 했습니까?[첫 시술]

- ① 10대 ② 20대 초반 ③ 20대~30대 ④ 30대~40대 ⑤ 40대~50대  
 ⑥ 60대 이후 ⑦ 기타( )

6. 귀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7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만족도 문항으로 이동)



**이번 문항은 미용주사 시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가 맞은 미용주사는?[중복체크 가능-선호도 순으로]

- ① 백옥주사( ) ② 신데렐라주사( ) ③ 마늘주사/감초주사( )  
 ④ V라인/윤곽/달걀주사( ) ⑤ 물광주사( ) ⑥ 뱀파이어주사(피주사)( )  
 ⑦ 기타( ) ( )

**\*미용주사의 종류 중 안면피부에 이용되고 있는 주사들의 성분 및 효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종류	내용
백옥주사	성분-글루타치온(필리핀에선 금지), 정맥주사, 간염의 보조치료제로 사용, 피부톤이 하얘진다고 알려져(일명 비온세주사)
신데렐라주사	성분-알라리포산, 일종의 항산화제, 정맥주사, 간기능 회복용으로 사용, AIDS 나 다발성신경병증에도 처방, 항산화효과 및 미백, 노화방지 효과, 허나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다.
마늘주사/감초주사	마늘주사-비타민B1성분, 수액과 함께 맞는다, 마늘향이 난다. 각기병치료, 신경통, 관절통, 말초신경장애 등 효과,(But 폐부종, 중추신경불안,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 감초주사-감초성분, 수액과 함께 맞는다, 알러지성 피부질환, 만성 간질환 효과
V라인/윤곽/달걀주사	성분이 정해진 바는 없고, 병원마다 재량껏 성분을 배합해서 쓰는것, 지방층에 직접 주입해 지방층을 줄여주는 효과
물광주사	성분-히알루론산, 작은 입자를 피부에 촘촘히 얹게 주사한다, 시술시 통증이 상당, 시술 후 울룩불룩한 자국이 1~3일정도
뱀파이어주사(피주사)	PRP: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피를 뽑아서 정제해서 PRP를 따로뽑아낸다. 이를 관절치료목적, 얼굴 피부에 얹게 촘촘히 주사, 바르기도 한다. 피부재생으로 알려져, 통증이 상당함.

2. 귀하가 미용주사를 맞은 원인은?(1순위만)

- ① 건조 ② 잔주름, 노화개선 ③ 거친 피부결 ④ 피부톤/미백  
 ⑤ 트러블개선 ⑥ 얼굴윤곽을 매끄럽게 ⑦ 기타( )

3. 귀하는 미용주사를 부위별로 몇 번을 맞았습니까? [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이상 ⑦ 기타( )

·백옥주사( ) ·신데렐라주사( ) ·마늘주사/감초주사( ) ·물광주사( )  
 ·V라인/윤곽/달걀주사( ) ·뱀파이어주사(피주사)( ) ·기타( )

4. 귀하가 받은 미용주사의 주기는?[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주일에 한번 ② 2주에 한번 ③ 3주에 한번 ④ 4주에 한번  
 ⑤ 3개월에 한번 ⑥ 6개월에 한번 ⑦ 1년에 한번 ⑧ 기타( )

·백옥주사( ) ·신데렐라주사( ) ·마늘주사/감초주사( ) ·물광주사( )  
 ·V라인/윤곽/달걀주사( ) ·뱀파이어주사(피주사)( ) ·기타( )



**이번 문항은 실 리프팅 시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가 실 리프팅을 받은 부위는?[중복체크 가능-선호도 순으로]

- ① 눈매교정술( )      ② 눈가~팔자주름( )      ③ 팔자주름~턱부위( )  
 ④ 이마~턱까지(얼굴전체)( )      ⑤ 목주름( )      ⑥ 기타( ) ( )

2. 귀하가 실 리프팅을 받게 된 원인은?(1순위만)

- ① 눈꺼풀 처짐      ② 볼/얼굴 처짐      ③ 턱주름      ④ 팔자/입가주름  
 ⑤ 사각턱개선      ⑥ 목주름      ⑦ 기타( )

3. 귀하는 실 리프팅 시술을 부위별로 몇 번을 했습니까? [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이상    ⑦ 기타( )

· 눈매교정술( )	· 눈가~팔자주름( )	· 팔자주름~턱부위( )
· 이마~턱까지(얼굴전체) ( )	· 목주름( )	· 기타( )

4. 귀하가 받은 실 리프팅 시술의 주기는?[해당하는 부위에 번호로 적어주세요]

- ① 6개월에 한번    ② 1년에 한번    ③ 2년에 한번    ④ 3~5년에 한번    ⑤ 기타( )

· 눈매교정술( )	· 눈가~팔자주름( )	· 팔자주름~턱부위( )
· 이마~턱까지(얼굴전체) ( )	· 목주름( )	· 기타( )

5. 귀하는 실 리프팅 시술을 언제부터 했습니까?[첫 시술]

- ① 10대      ② 20대 초반      ③ 20대~30대      ④ 30대~40대  
 ⑤ 40대~50대      ⑥ 60대 이후      ⑦ 기타( )

6. 귀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7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만족도 문항으로 이동)









**이번 문항은 시술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만 체크해주세요.]**

1. 귀하의 미용시술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시술효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시술 비용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시술로 인한 통증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시술기간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담당자의 서비스가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감을 향상 시켜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9	주변인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재 시술 의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